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2009 **신춘** 특집호



2009 + 05 + May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10~11:00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2009 **신춘** 편지호

004 **신춘편지쇼**

006 **심사경과**

008 **심사평**

012 **당선작**

최우수상 - 생선장수 아버지의
동그라미 도형 편지

우 수 상 - 새 학년마다 써야 하는 편지
세 통의 편지

입 선 - 아버지의 편지와 통장과 밥상
집배원인 내가 전한 편지

형은 나의 수호천사

고추장과 편지가
남편을 빼앗아가다

말자 언니야, 고마워!

070 **행복을 찾는 사람들**

여성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패션주얼리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발을 닦아준다는 것

079 **성장보고서**

반성을 하고 말고는 자세를 묶일세

082 **부부클리닉**

질투는 부부의 힘

086 **요리보고 자연보고**

땅의 기운이 뻗 굴삭은 맛 목은지

090 **대중문화 산책**

행복의 조건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고맙다, 전주!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동분서주하는 나날들

096 **이PD의 용쟁호투**

알도 정도의 문제

098 **한 장의 생각**

단체 가브리엘 로제티의 <베아타 베아트릭스>

2009.05 + May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이은주, 이창호 방송_MBC 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 일러스트_이진미

여성시대/월간지/비매월/2009년 5월호 발행_2009년 5월 10일 발행인_(주)문화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관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2009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여성시대가 이 땅에 태어난 지 35년!
그리고
여성시대 봄의 축제인 신춘편지쇼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서른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에 빛나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올해의 글제는 '편지'였어요.
31년 전, 첫 번째 신춘편지쇼의 글제 역시 '편지'여서
신춘편지쇼, 서른돌의 의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메마르기 쉬운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시절의 정겨운 편지로 따뜻함을 나누자는 뜻에서
접수도 우편으로만 받았습니다.



응모작은 2,000통 가까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장려상 · 입선 · 우수상 · 최우수상을 가렸습니다.

최종심에서 심사를 맡아준 분들은
드라마 작가 김운경 님, 소설가 성석제 님, 시인 나희덕 님이었습니다.

입선과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작은
4월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여성시대 1,2부를 통해 전국에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에는 여의도 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수상자 가족과 전국의 여성시대 가족을 모시고
신춘편지쇼 축하공개방송도 가졌습니다.
봄꽃처럼 화사했던 이 자리에는
심수봉 · 박강성 · 박상민 · 나무자전거 · 장기하와 얼굴들 · 노라조 등
인기가수가 함께했고, 강석우 씨의 색소폰 연주와 양희은 씨의 노래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신춘편지쇼 수상자

신춘편지쇼는...

해마다 봄이면, 책상 앞에 앉는 우리
밤 새워 글을 쓰고 원고지를 채우네.
연필로 쓴 글을 지우며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울 수 있다면,
우리 과오도 다시 적어나갈 수 있다면, 하고
긴 숨을 쉬네.

신춘편지쇼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
밟고 지나온 발자국을 다시 거슬러
지난날의 나를 만나고 오는 시간—
신춘편지 쇼는 나를 찾게 하는 시간,
지난날의 나와 화해의 긴 악수를 하고
가벼운 어깨로 걸어 나와 현재에 서게 하는 시간—
그리하여 신춘편지쇼는
현재를 꼭꼭 눌러 디터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가게 하는 시간—

우리의 홀로 일어서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위해
신춘편지쇼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겠네.

최우수상 |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

- 김경태 (대전시 중구 산성동)

우수상 |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

- 이정연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조정향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입선 |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

- 두선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이문혜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임복희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 진상용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 최병용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장려상 |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강정희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김상천 (부산시 사하구 과정동)
- 김석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박수임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 이바인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 이선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이수옥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 이재원 (서울시 중구 무교동)
- 이한구 (전북 장수군 장수읍)
- 한정숙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아름다운 중독의 시간

● 김운경(드라마작가)

‘편지’라는 주제의 보내온 주옥같은 글을 읽으면서 김광규 시인의 〈엽서〉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버 바이에른의 가을 마을에
나는 때때로 안개가 되어

가버린 나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습니다. 편지란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버린 나에게.

구구절절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사연이 어찌면 이토록 다양하고 많은지….

때로는 소리 내어 깔깔거리기도 했고, 불행하고 가슴 미어지는 글을 대할 때는 차마 다음 장을 넘기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를 쓰는 저에겐 그야말로 이 모두가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편지 작가들의 문학을 읽는 동안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편지,
출옥하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용서하는 편지,
저승에 간 며느리를 그리워하는 편지,
칠순의 나이에 암수술을 끝내고 생의 끝자락에서 북한을 탈출해 흑룡강성에 숨어 있는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젊은 날 불타는 사랑의 맹세를 회상하는 편지,
그리고 불타는 사랑은 사라지고 마침내 변명처럼 내 뱉는 말.
우리의 편지는 아름다운 중독이었다고….

본선에 올라온 50편의 글을 읽는 동안 행복했고, 김난영 씨의 편지 제목처럼 ‘아름다운 중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심사기준은 이랬습니다.

문장의 유려함이나 맞춤법 등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진실이 묻어나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진실인가?

오직 그것만을 잣대로 삼아 심사에 임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한통의 편지

● 나희덕(시인)

편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 성석제(소설가)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 한통의 편지 속에 인생 만사가 녹아 있다. 기쁘고, 슬프고, 우습고, 즐거우면서 가슴 아프고 감동적이 사연이 있다.

별다른 꾸밈이 없는데도 이야기는 저마다 길기도 하다. 어떤 것은 가지가 숲처럼 울창하고, 어떤 건 우물처럼 깊다. 가족에게 찾아온 불행이 모래알 같은 가족을 금강석처럼 단단히 결속하게도 하고, 소소한 기쁨이 삶의 가치를 하늘 높이 들어올린다. 마음이 절로 움직인다.

태어나기는 남남으로 났지만 어떤 인연으로 가족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속박하게 되며 어느 때는 상처를 주는 관계가 수많은 사연을 낳는다. 딸이 죽고 슬픔에 빠져 있는 아버지에게 딸이 되어주는 사람, 결국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의젓한 표상으로서 큰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의 내용은 사랑이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스스로도 행복해진다.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다. 아름다운 다리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살랑살랑 바람 부는 다리 위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보기에 참 좋다. ♥

이 천여 편의 편지 중 예심을 통과한 50편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객관적인 심사자의 눈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신춘편지쇼의 주제인 ‘편지’를 매개로 펼쳐진 사연들은 삶의 온갖 희로애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함께 울고 웃기를 반복하면서 읽었으니까요. 평가보다는 공감의 몫이었지요. 편지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중한 매개체라는 걸 실감했고, 때로는 편지 한통이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과 나누는 편지, 헤어졌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을 향해 쓰는 편지, 글씨로 쓴 편지, 그림이나 도형으로 쓴 편지... 그 대상과 표현방식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각 편지들이 진솔하게 전하는 감동을 두고 우열을 가르는 쉽지 않지만, 몇 가지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혀둡니다.

첫째, 소재와 내용이 참신하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글인가.

둘째, 이야기의 집중도가 높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가.

셋째, 사실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문학적 표현을 잘 구사하고 있는가.

넷째,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구체적이고 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가.

다섯째,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여섯째, 극적 긴장감이나 반전을 통해 읽는 묘미를 제공하고 있는가.

같은 얘기도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쓰면 훨씬 재미있고 공감을 주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날로그시대가 가고 디지털시대가 왔다고들 하지만 편지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슬픔을 실어나를 것입니다. ♥

○ 신춘문예 수상작들

• 최우수상 생선장수 아버지의 동그라미 도형 편지

• 우수상 새 학년마다 써야 하는 편지

세 통의 편지

• 입선 아버지의 편지와 통장과 밥상

집배원인 내가 전한 편지

형은 나의 수호천사

고추장과 편지가 남편을 빼앗아가다

말자 언니야, 고마워!

• 일러스트_ 김금복

생선장수 아버지의 동그라미 도형 편지

◎ 글_김경태 | 대전시 중구 삼성동

나 어릴 적, 우리 아버지에게선 언제나 생선비린내가 났다. 아버지는 생선 장수였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창피했다. 어쩌다 놀러간 친구 집에서 만난 친구의 아버지에게선 향긋한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생선비린내와 땀 냄새가 섞여 나는 것이 창피해 길에서 만난 아버지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기도 했다.

팔다 남은 생선이 늘 올라오는 밥상도 싫었고, 글씨를 몰라 툭하면 자고 있는 나를 깨워 뭐든 읽어달라고 하시는 아버지도 정말 싫었다.

아버지는 혼자만 아는 그림으로 돈 계산을 하였고, 그러다가 그 계산이 맞지 않는 날에는 밤새도록 그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며 날을 새기도 하셨다.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벌어들인 돈으로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동네잔치까지 벌여 자랑하고 또 자랑하셨다. 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가보다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된 것이 너무나 좋았다.

서울에 올라가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여기 이 봉투에다가 내가 있을 곳의 주소 좀 써봐. 여따가 전부 다 써놓고



가야지 돼야. 내가 까막눈인 게 글씨를 못 쓰잖여. 니가 보구잡아도 답답해서 살 수가 있겠냐? 전화도 없잖여.”

아버지는 족히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편지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놓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글씨도 못 쓰시는 분이 봉투만 써놓고 가면 내용은 어떻게 쓰신다는 거지?’

그러나 아버지의 그런 사정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은 내 마음 앞에선 맥을 출 수가 없었다. 나는 건성으로 주소를 써서 아버지께 드렸다.

서울은 나로 하여금 시골에 계시는 생선장수 아버지를 잊게 했다. 내가 만나는 하루하루는 그저 새롭고 즐겁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취집 주인 아주머니가 낫익은 편지봉투 한 장을 건넸다. 내 글씨였다. 나는 그제야 내 고향을 생각했고,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떨려왔다.

‘글씨도 모르는 아버지가 과연 어떻게 글씨를 쓰셨을까?’

편지에는 글씨 대신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 동그라미는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오직 딸 하나만을 위해 생선을 팔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되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편지를 펴놓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그린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그동안 까막득히 잊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를 향해,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아버지를 향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 허리 편찮으신 건 좀 어떠신지요?’

여기까지 써 내려가던 나는 그만 큰소리로 울어버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내가 싫어서 눈물이 났고, 딸이 보낸 이 편지를 아버지가 읽지 못하실 게 서러워 눈물이 났다.

주말을 이용해 나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나를 보시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다.

“니가 웬일이야? 어디 아픈 데는 없자? 학교는 땡길만 하고?”

아버지는 무슨 황재나 하신 것만양 좋아서 지꾸만 나를 쓰다듬으셨다. 그런 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에게서 나는 그 비린내가 싫지가 않았다. 오히려 정겹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방에 들어선 나는 머리맡에 놓여 있는 며칠 전에 내가 보냈던 그 편지를 보았다. 편지봉투는 열려 있었다. 내 마음을 눈치 채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니 편지를 받았는디 읽을 수가 있어야제. 그래 내가 이장님한테 달려가서 읽어달랬지 뭐... 참근디 너도 내 편지 잘 받았제?”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던 나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아야 했다. 그 사이 더 늙어난 아버지의 주름보다, 이젠 거의 백발이 되어 버린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



보다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건 아버지가 그린 그 동그라미 때문이었다.

‘그사이 나는 왜 아버지한테 글씨를 가르쳐드릴 생각을 하지 못한 걸까? 사랑하는 딸의 안부를 묻지 못하고 글씨를 대신해 아버지만의 그림으로 편지를 써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근디 왜 안 묻냐? 그 동그라미가 뭘 뜻인지 니도 안기여?”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인심 좋은 웃음을 웃으시며 “몰랐구먼... 그건 말여, 나는 잘 있을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여. 그리고 너도 잘 있나워 이런 뜻도 되고... 어떠냐? 내 머리가 좋재?”

아버지는 그렇게 웃고 계시는데, 내 눈에선 자꾸만 눈물이 났다.

“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서울 가세요. 특별히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장사는 어디서 하나 다 똑같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내가 기특하셨는지 아버지는 내 손을 꼬옥 잡으셨다.

“아녀. 내가 가봤자 너한테 짐만 되지. 나 여기서 살겨. 글씨를 몰라도 무시하지 않고, 사람 대접해주는 이웃이 있어 좋고, 내 생선이 제일 싱싱하다며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있어 조응께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혀.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컸구먼!”

그 후로도 아버지는 가끔 내게 편지를 보내셨다. 편지에는 크고 작은 동그라미는 물론이고 가끔은 세모도 그려져 있었고, 또 더러는 알지 못할 이상한 그림도 그려져 배달되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건 이상한 그림문자였지만, 그 그림을 보며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시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가끔은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럴 때면 나는 아버지께 달려가기도 했고, 이장님께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부탁드리기도 했다. 아버지께 단 한 번도 “이 문자가 무슨 뜻이었느냐?”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 그림은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림문자로 편지를 보내 주실 내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나던 그 정겨운 생선비린내도 이제 맡을 수가 없다. 나이를 이만큼 먹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보내주시던 그 편지가 내게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를...

언제부터가 내게는 편지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 내게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없어졌으며, 내가 편지를 쓸 대상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편지지가 필요 없는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 나는 가끔 하늘에 대고 손을 들어 편지를 쓴다. 예전의 아버지처럼 가끔은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 보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세모를 그리기도 하면서 아버지께 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아마 편지를 받으신 아버지도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딸의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리

새 학년마다 써야 하는 편지

◎ 글_이정연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고 세모나 다른 그림보다는 커다란 동그라미가 더 많기를 아버지는 기도해 주실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도 하늘에서 여전히 나를 향해 편지를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나는 잘 있겠네 너도 잘 살아야 한다’ 이러시면서 아버지만의 그림문자로 된 편지를...❤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이 살랑살랑 우리 집 창가로 찾아오는 3월이면 나는 편지 쓰는 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다.

겨울방학 동안 아들과 도란도란 지내다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가까워오면 왠지 빠근하게 가슴이 아파오고 두근거린다. 우리 아들의 건강 상태를 편지에 고스란히 펼쳐 놓아야 하는 엄마 마음이 아러오기 때문이다. 해마다 겪는 일이면서도 그 아픔은 줄어들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올해 열여덟 살 고등학교 2학년, 나무처럼 자라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노라면 어쩌나 마음이 흐뭇하고 설레는지 기쁘기 그지없다. 이런 마음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수많은 역경을 넘고 넘으며 살고 있다. 1,600그램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65일을 지냈다. 아니 버텼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숨털같이 작고 어린 몸이 65일을 보내고 100그램 늘어 1,700그램으로 퇴원을 했으니, 작은 그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그날들을 버텼다고 해야 옳은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들이 자라는 동안 수많은 걱정으로 엄마 가슴은 파랗게 멍이 들었지만 그

래도 행복했다. 10년 연애 끝에 결혼해 낳은 우리 부부의 소중한 첫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아빠를 알아보고 깔깔대고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은 언제나 향기로웠다. 그게 바로 사람 살아가는 행복이었으므로...

둘이 지나 네 살이 되어서야 우리 아이는 뒤늦은 걸음마를 시작했다. 한 발 짝 또 한 발 짝 때는 아이의 발걸음은 엄마 가슴에 통통통 실로폰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왔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음악이 있을까 싶어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거북처럼 느릿느릿 자라는 녀석은 다섯 살이 되어서야 “엄마”, “아빠” 짧은 단어의 말을 시작했다. 또래의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 가고 유치원에 갈 시기에 말을 시작한 것이다.

“조금 늦으면 어때! 우리 천천히 가지 뭐! 느림보 거북도 있고 달팽이도 있는 걸.”

어여쁘게 커가는 걸 지켜보았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늦기만 했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 생활을 잘해나가던 1학년 겨울 방학을 맞을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다. 얼굴을 많이 다치고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누워 방학을 보냈다. 4주 후, 깁스를 풀었으나 뼈가 잘 붙지 않았다 해서 다시 4주 더 깁스를 해야 했다.

엄마의 등에 업혀 1학년을 마무리하고 2학년이 되었다. 잘 자내는가 싶던 어느 날,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다.

살얼음판 위를 걸듯 자라온 아이가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어찌 우리 아이에게 이런 힘겨운 병마를 겹치기로 쏘아 붓는지 하늘도 무심하다 싶어 서 탄식이 절로 나왔다.

입원을 해서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수시로 검사를 하고 끼니때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꾸준히 검사한 기록을 병원에 가지고 가서 의사선생

님께 설명을 듣고 병을 이겨보려 애를 썼다.

혈당을 관리하느라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되었다. 아빠가 입은 양복처럼 멋지다고 좋아하는 반듯한 교복을 사다가 걸어두고 녀석은 웃음이 떠날 날 없이 즐거워했다. 학교 마크가 새겨진 교복을 살며시 만져보고 피식 웃고, 슬쩍 바라보고 또 피식 웃었다. 입어보고 만져보고 수줍은 웃음꽃이 환한 얼굴에 대롱대롱 맺혀 어찌나 즐거워하고 가슴 설레 하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엄마 마음도 흐뭇하고 즐거웠다.

이들은 콩콩 뛰는 가슴을 안고 새봄을 시작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하늘색 와이셔츠 감색 넥타이를 매고 말끔한 교복에 ‘김민재’ 하고 또렷하게 새긴 이름표를 달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불을 간절이며 장난치는 봄바람에 푸른 잎이 돌아나는 나무처럼 굳건한 아들이 입학하고 열흘쯤 지나 두둥실 뭉개구름처럼 뒤틀린 기분이 사라지지도 않은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녀석이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았다. 혀가 뒤로 넘어가 기도를 막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급하게 손에 수건을 감아 혀를 누르며 119에 전화를 했다.

내 마음처럼 철쭉 같은 어둠이 깔리는 그 밤, 구급차에 실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 시커멓게 가슴 태운 시간이 5시간쯤 흘렀을까. 의식을 찾은 아들을 본 순간 ‘이제 됐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온갖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뇌종양이었다.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한 것은 아니라며 조금 지켜보자 했다. 아픈 내색 없이 늘 씩씩하던 녀석은 걱정거리가 한 가지 더 늘어선지 어느새 파리해진 얼굴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고, 급하게 종양제거 수술을 받게 됐다.



아무것도 아닌, 폴뿌리처럼 초라한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픈 아들
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가슴이 찢어질 듯 안타까워 눈물만 펄펄 쏟아졌다.
눈물만 한 보따리 안고 있는 부질없는 엄마가 아이 마음에는 지켜주고 의지할
힘으로 보이는지 엄마 손을 꼭 쥐고 잠시도 놓지 않으려 했다. 도움이 되지 못
해 애달픈 엄마는 오직 마음속으로만 우리 아이가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다.

수술실에 가기 위해 분주한 아침, 엄마 가슴이 도려진 듯 아픈 그날,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슬프디 슬픈 눈으로 금방 쓰러질 듯 애처로운 나팔꽃 같은
웃음을 지으며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엄마 나 괜찮아” 하
며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다. 속으로는 두렵고 무서워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엄마 걱정할까봐 젖은 눈으로 웃고 있었다.

실시간 수술환자 상황이 나오고 있는 전광판에 ‘수술준비중’, ‘수술중’,
‘수술완료’, ‘회복중’이라는 문구가 나올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었던 6시간. 60년 같은 6시간이 흐르고 머리에 온통

하얀붕대를 친친 동여매고 회복실에 누운 아들은 “엄마, 엄마” 하며 울기만 했
다. 따뜻하게 손 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에 가슴을
졸이고 떨었던지 계속 울었다.

이름도 있었겠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마음이 놓이는지 그칠 줄 모
르고 펄펄 울기만 했다. 손을 꼭 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쓰다듬으며 “괜찮아.
이젠 다 괜찮아 질 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아무렇지 않게 다나올 거야. 괜
찮아, 조금만 참자.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하며 볼을 쓰다듬고 손을 잡아주
자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듯 한 달 동안의 병원생활을 끝내고 차츰 회복해가
며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머리에 큰 수술 자국이 남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
지만 아들은 곳곳하게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 아직도 꾸준
히 치료약을 먹어야 하고, 뇌파검사와 MRI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고 매일 혈당
체크를 하고 주사를 맞으며 생활하지만 언제나 씩씩하고 의연하게 미래를 향

해 큰 꿈을 꾸며 살고 있다.

나는 우리 아들의 꿈에 푸른빛을 밝혀주기 위해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아들의 몸 상태와 진료과정, 특별한 상황에 처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 또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의 글을 쓴다. 더불어 우리 아이는 특별하지 않고 동등반아야 할 불쌍한 아이가 아니니까 보통 아이들처럼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아 주시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간절한 엄마의 마음을 꼭꼭 눌러 적은 편지를 새롭게 만나게 될 선생님께 보낸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엄마의 간곡한 편지로 시작된 학기가 어느새 10년이 넘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자식을 향한 엄마 마음엔 딱지가 앉지도 않는 것인지 쓰라리고 아프기만 해서 선생님께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를 말로 설명하려면 말이 목구멍으로 나오기도 전에 뜨거운 그 무언가가 울컥 목구멍에 차오른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기만 하고 정작 해야 할 말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시작된 편지 쓰기. 겨우내 다독거리다가 화사한 봄별 드리운 별판에 내보내며 새봄 새로운 용기를 아들의 가슴속에 심어주려 올봄에도 담임선생님께 글로 그리는 수채화처럼 마알잘고 투명하게 엄마의 마음을 적어 편지를 보냈다.

“민재 어머님 편지를 받고 제가 눈물이 나네요. 민재 얼굴이 밝아서 걱정은 접어드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시작되는 선생님의 답장에 희망이라는 봄꽃 향기가 묻어났다.

늘 상록수 같은 꿈을 키워가는 우리 아들, 사랑스런 나의 아들에게 톡톡 어깨를 두드리며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심어주려다.

나는 언제나 희망이라는 편지지에 펜 끝에 살짝 엄마 마음이라는 잉크를 적어 거짓 없이 수채화 같은 편지를 쓴다. 내가 가진 두 개의 보물, 나는 사랑스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

세 통의 편지

● 글_조정향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며 칠간은 반찬을 만들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작은애가 있었지만 제 모든 신경은 천 리 밖에 두고 온 아들 생각에 반찬을 만들어 맛있게 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큰애가 등 뒤에 와 애교 섞인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오늘의 요리는 뭐가요?”

“네, 손님!오늘은 닭볶음탕이에요.”

“오늘은 손님이 좋아하시는 오므라이스예요.”

“오늘 메인요리는 감자탕이고요 곁절이는 서비스예요.”

큰아들은 식탁에 앉아 한 술 떠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와우!사모님? 정말 맛있어요. 식당을 내면 부자 되겠는데요?”

“예, 저도 알아요. 알지만 전 우리 가족 전용 요리사로만 만족하며 살 거예요.”

“국물 맛이 죽이는데요. 리필도 되나요?”

“암요. 얼마든지 드세요. 충분히 만들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식사 값으로 안마 30분에 서비스로 귀도 파드릴게요.”

장난스럽게 나눴던 큰아들과의 대화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뛰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쎄 맛있다고 말하던 큰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맛 있는 요리를 해 먹는다는 것은 새끼 떼어 놓고 온 어미로서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편지글이 이렇습니다.

‘엄마!

밥은 잡셨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은 식사시간에도 자주 납니다.

아, 우리 엄마 밥이 10만 배는 더 맛있는데 하는 생각이 나고요.

초고추장에 양배추 찜이 나오면 아, 우리 어머수도 이거 잘 잡셨는데 하지도.

소고기국이 나오면 엄마가 끓여주던 육개장이 생각나요.’

작년 연말에 대학 1학년, 스무 살이던 큰아들이 해병대 입대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란 나는 “왜 하필 힘들다는 해병대냐? 2학년이나 3학년 마치고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들은 참으로 속 깊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년에 가야, 얼마나 화용이한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군대는 갔다 와야 하는데, 사나이라면 해병대 정도는 다녀와야죠.”

두 살 아래인 동생이 발달장애 2급입니다. 작은애는 세상에서 형을 제일 좋아하고 많이 의지합니다. 큰아이 또한 제 입속에 들어간 것까지 꺼내줄 만큼 엄마인 저보다 동생을 사랑합니다.

그 동생이 특수학교 고등부 3학년이 되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간도 일 년 남은 셈입니다. 졸업을 하면 마땅한 복지시설을 찾기 전까지는 종일 집에서 씨름해야 하기에 남은 일 년, 낮 시간만이라도 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동생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엄마는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과 엄마를 먼저 생각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아들의 그 고운 마음을 받아들여 허락하긴 했지만, 이런 현실에 살게 하는 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작은애는 형이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아무리 늦어도 기다렸다가 함께 잠자리에 들고 MT를 간 날은 밤을 꼬박 새며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아는 큰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도 먼저 빠져나오고, MT를 다녀오는 날은 다른 친구들은 뒤풀이를 가는데, 그동안 기다렸을 동생 걱정에 서둘러 귀가해 동생과 놀아줍니다. 참으로 살가운 형입니다.

작은애의 체격이 급격히 커지는 바람에 시중에서는 옷과 신발을 구할 수 없어 지금껏 인터넷이나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큰아이가 옷이랑 신발을 사다 주어 입히고 신겼습니다.

군대 가고 나면 엄마가 해매고 다닐 게 걱정이 됐는지 300밀리미터 운동화 두 켤레와 옷 몇 벌을 군대엔 용돈 쓸 일도 없다면서 모아둔 용돈을 다 털어서 다 주었습니다.

궁금해 하고 걱정할 엄마를 위해 해병대 가족모임카페에 가입도 시켜주고 동생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다운받아 놓은 것도 찾기 쉽게 컴퓨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작은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함께 갈지 말지에 관해 여러 날 의논한 끝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형이 어디간지도 모른다면 그 막막한 기다림을 어찌 견뎌낼까 싶어서였습니다.

꽃샘추위가 매섭게 찾아온 2월 중순, 경북 포항 해병대 신병교육대에 큰아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입소식이 시작된다는 방송이 나오자 주차장 건너편 행사장 건물 앞으로 가족·연인·친구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많은데 가면 화용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나까 먼저 올라가세요, 저 혼자 갈게요.”

아들은 주차장 모래흙 위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복받치는 울음을 끝내 참지 못해 흐느끼며 착하고 예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 걱정이나 화용이 걱정은 싹 잊어버리고 네 몸만 잘 챙겨. 건강하게 잘 있다와라. 우리 아들, 사랑한다.”

남편도 울고, 큰아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수선했던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지 작은애는 펜스레 화를 내며 불안해하고, 낮설 때 내는 특유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행사를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 분위기를 못 견뎌 하는 작은애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입영행사 마지막 식순에 있던 가족에게 큰절을 올리는 시간에 그래도 혹시나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두리번두리번 우리를 찾았을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작은애는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마침 그날부터 2주간의 봄방학 기간이라 24시간 저와 둘이서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형을 찾으며, 하품을 하면서도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필승! 형아 군대 데려다 주고 왔지 않았느냐” 하고는 “형아, 백 밤 자면 을 거니깐 자자”고 하면, 화용이는 “필승” 하면서 거수경례 흉내를 내면서도 군대가 뭔지, 형이 왜 이렇게 오래 집에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뛰어나가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주고, 자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수화기에 귀를 갖다대며 혹 형이 오지 않을까, 전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지 않은 형을 기다렸

습니다.

형을 데려다주던 날 입었던 옷을 마르기도 전에 곱게 개어 소파에 올려놓고, 엄마나 아빠가 ‘형아 데리러 가자’는 말만 기다리는 듯 옷장에 넣어두면 어느새 다시 꺼내 소파 위에 챙겨놓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씩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애타게 형의 이름을 불러대고, 수시로 자동차 키를 가져와 내밀며 “형을 데리러 가자”고 성화를 부려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시 때때로 울어대는 엄마를 보며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걸 저도 깨달았는지 제가 올 때마다 휴지를 둘둘 말아와 눈알이 빠지도록 눈물 흔적을 닦아주며,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줍니다.

저는 작은애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남편은 출근해서도 나와 작은애 걱정애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물어오는, 정말이지 하루가 꼭 10년 같은 날들을 살았습니다.

형이 그리워 울고불고... 급기야 화까지 내며 경중경중 뛰는 작은애에게 입소식 날 큰아들 모습을 찍었던 동영상이라 생각나 그거라도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먼저 찍어둔 동영상에 있어 뭔지 궁금해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아! 큰아이의 자상한 배려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제 찍어 두었는지 큰아이는 동생 앞으로 메시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화용아? 화용아? 울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엄마랑 잘 놀고 있어. 형아... 필승! 이렇게 훈련받고 백 밤. 하나, 둘, 셋 이렇게 백 밤 자고 올 거니까. 울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밥 잘 먹고, 코 잘 자고 형 기다리고 있어. 우리 화용이 제일 착하지?”

큰아이는 작은아이가 분명 울고 떼쓰고 화낼 거란 걸 알았기에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거수경례의 모습도 취하고, 엄지손가락을 세워 제일 착하지 하며,



차분한 어투로 직접 동생을 달래 줄 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몰래 찍으며 아이의 속은 오죽 아렸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가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예쁜 내 새끼, 착한 내 새끼….

포항에 데려다주고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소포가 왔습니다. 택배아저씨가 박스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래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소포 박스 겉 메시지 란에 낙인은 아들의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박스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고서야 박스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체취가 묻어 있는 입고 갔던 옷가지들과 신발, 여유분의 속옷과 세면도구, 차고 갔던 손목시계까지 모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지 입고 간 티셔츠 앞면과 어디서 구했는지 수첩을 찢은 듯한 작은 종이에 소지품 담아 간 가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예전 학원 다닐 때 받은 안내문 이면에도 빼곡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을 걱정하는 글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입소기간이라 아직 훈련이 힘들지 않아서 그런지

집에서 울고 있을 희용이와 제 걱정엔 잠 못 이루실 엄마 걱정이 더 큼니다.

밥은 잠렸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진 안 가지고 왔으면 정말 피눈물 날 뻔했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희용이한테도 꼭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들의 편지와 소포를 학습고대했던 건 교육번호를 알아야만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를 미리 써서 우표까지 붙여놓고, 아들

편지만 기다렸기에 눈물 자국 지우지도 못한 채, 그 길로 우체국으로 달려가 첫 편지를 부쳤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일기처럼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소와 아들에게 교번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또 얼마나 행복하던지...

편지 쓸 시간이 주말에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외사랑 편지쓰기는 계속되었고, 입대 3주 만에 '군사우편'이란 도장이 찍힌 아들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마편지, 아버지 편지, 화용이 편지 따로 쓴 세 장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엄마...

편지 첫줄은 온통 엄마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미 찾는 송아지의 울음처럼 아들의 목소리가 심장에 와 꽂혔습니다.

'저는 진짜 잘 있어요, 엄마도 제 걱정 마시고 화용이랑 건강하게 잘 보세요.

엄마랑 화용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네요.

엄마는 많이 울지 마세요. 4주차 때 실무배치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섬으로만 안가게 기도해 주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 큰아들 믿으라고, 더 멋진 아들, 더 착한 아들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데려다주고 온 다음날 아침부터 군인들의 기상시간이라는 6시에 일어나 매일 108배를 올리며, 그저 무사 무탈하게 훈련소 생활 마치고 집 가까운 곳으로 실무배치를 받아 의좋은 두 형제 면회라도 자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축원으로 하루를 맞습니다.

아빠 앞으로 쓴 편지는 남자끼리여서인지 좀 더 어른스런 내용들이었고, 동생 앞으로 쓴 편지는 봉투 겉장에 쓰인 몇 줄만으로도 내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

니다.

'화용아? 네가 나중이라도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형은 정말 좋겠구나.'

말도 잘 못하지만 한글을 전혀 모르는 동생 앞으로 큰아이는 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화용아? 잘 있냐? 형은 내가 너무 보고 싶다. 내 동생아...'

내 인생의 지표인 얘기야!

이제 와서 느낀 건데 내가 없는 내 인생은 없는 것 같다.

형 없다고 너무 울지 마. 더 강한 형, 더 착한 형, 최고의 형이 돼서 돌아갈 테니까.

엄마 ·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매일 밤 너 재우고 딴 짓 하려 했던 내가 너무 밍구나. 널 재우고 네 옆에서 같이 자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어.

여기 와서는 친구보다 컴퓨터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보고 싶구나.

착하고 착한 불쌍한 내 동생. 형이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금방 갈게.

형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렴.

화용아, 화용아 너무 보고 싶다.

너와 피를 나눈 유일한 형제고, 너의 두 번째 엄마이며, 너를 가장 사랑하는 국용이 형이.'

두 번째 세 번째의 편지에도 꼭 세 장으로 된 편지가 왔고,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어머니! 저 너무 기뻐서 일기장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25일 26일 보내주신 어머니의 첫 편지를 오늘(3월 3일) 아침에 한꺼번에 받

왔어요.

편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 소리를 질렀어요. 왜 군인들이 편지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편지에 우표 몇 장 보내 달라고 썼는데요. 어머니, 역시 엄마는 저랑 잘 통해요. 누구 엄마인지 참, 센스가 10점 만점인데 100점이랑게요.

옆에 동기들이 파스랑 밴드, 우표, 편지와 봉투까지 넣어 보낸 걸 보더니 '너희 엄마 센스, 정말 장난 아니다' 라면서 다들 부러워해요.

매일매일 일기 쓰는데요, 토요일 날 편지 써서 함께 보내드릴게요.'

'회용이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아! 형이야.

엄마랑 아빠가 너 잘 있다고... 이젠 적응해서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

기특한데?

짜식, 너도 어느새 열아홉 살이야. 언제까지 울고 화내고 떼쓰기만 할래 온 석야? 이젠 화도 적당히 내고, 엄마 말도 잘 들어야지 어?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쯤 넌 아빠랑 목욕탕에 있겠지? 찬물에서만 너무 오래 놀지 말고 아빠 등도 밀어 드리고, 목욕 끝나면 로션도 골고루 잘 발라.

밤에 상처 나도록 긁지 말고, 형은 지금 너랑 목욕탕에 가고 싶다. 물에서 같이 놀아도 주고 때도 밀어주고 면도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뭘 하든 그냥 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형아 휴가 나가면 꼭 목욕탕 가자. 형아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재밌게 놀아도 좋게.

회용아? 형 없다고 울지마. 잠깐이야 잠깐. 형 금방 갈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알았지? 형아 있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하고 있어.

사랑한다, 내 동생.'

이해를 하든 못하든 작은 애 앞으로 온 편지는 몇 번씩 읽어 줍니다. 그저께

받은 네 번째 편지는 제법 군인 냄새가 나는 내용들을 보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편지 쓸 시간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딱 한번 있는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이라고 해봤자 편지 쓰거나, 밀린 빨래 하는 것밖에 못하지만요.

전투체력테스트를 했는데요. 체력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군살도 조금씩 빠지고요. 봄벌에 그을려 해병대스러운 까무잡잡한 피부로도 변해 가고 있어요. 훈련이나 기합은 이제 적응이 되었지만 그리움은 어떻게 적응도 안 되고 익숙해지지도 않네요.

그래도 엄마의 큰아들, 잘 참고 견뎌 강하고 어른스런 아들 무적해병 무적국 용이가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애인이자, 큰아들이자 엄마의 희망인 국용 올림.'

'회용아?

네 생각한답시고 군대를 일찍 왔는데, 정작 니가 어떻게 느끼지는 전혀 알 수가 없구나. 집을 비운 형이 너무 밍고 야속하겠지만 그래도 형 생각엔 이 시점이 너한테나 형한테도 가장 좋을 거 같았어.

회용이 형씨이나 되면서 창피하게 공익을 가거나 면제받을 방법이 없을까 요리조리 눈치 보는 짓은 할 수 없잖나. 안 그래? 멋진 형 돼서 돌아갈 테니까 너도 조금만 더 성숙해져 있거라. 알았지?

먼 지방이 아니라 타국에 사는 사람과도 전화나 전자메일로 금방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초스피드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이런 아날로그식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도 그리워하고 행복해하며, 잊고 있었던 혹은 몰랐던 기다림을 배워 갑니다. 말로 나누는 대화는 머리에서 나오지만, 글로 표현되는 말은 심장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품에 안고 봄바람 살랑대는 길을 달려 우체국에 갈 겁니다. ♥

아버지의 편지와 통장과 밥상

● 글_두선화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아 직도 자나? 선화야, 자나?”

내 방 저편에서 아버진 연신 문을 두드리며 다 큰 딸내미를 어떻게든 달래서 밥 한 술 뜨게 하려고 애원하듯 간절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니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 뒀다. 인나서 한 술 뜨고 잔나. 선화야! 선화야! 언능 인나그라. 어이!”

“됐다고마. 누가 밥 묵는다고 했나. 와 안 먹겠다는 데 자꾸 귀찮게 하나. 한 끼 안 묵는다고마 죽기라도 하나!”

“인났나. 다행이고만. 난 니가 오늘도 못 인나고 그리 계속 아프면마 병원에 가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걱정했다 아이가. 다행이고만 다행이여.”

아버진 내 목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방문을 열더니 밥상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밥상 위에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동태찌개와 김치 한 종지, 멸치볶음 그리고 밥 두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능 인나그라. 밥을 먹어야 기운도 차리고 공부도 할끼 아이가. 어이쿠마! 찌개가 다 식어뿌렸네. 있어봐라. 아버지가 금방 뜨겁게 데워가꼬 올게고마.”

“됐다. 됐다. 아버지 고만 좀 하이소. 내가 안 먹겠다고 안 했다. 먹고 싶지 않

다 말이다. 아버지! 귀가 묵었나?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나 말이다.”

“아. 그러그라. 하근 여그다 밥상 놓고 나갈끼고마. 이따가라도 배고프마 그 때 먹그라. 그럼마 쉬그라.”

“냄새도 싫다. 밥상 들고 나가이소!”

“...”

힐끗 걸눈질로 밥상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이 힘 들고 구질구질한 삶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무능력한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남들 아버지와 다른 내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옷도 사 입고, 용돈도 받아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도 돌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생활비 정도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내게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이란 감히 꿈도 못 꿀 이상일 뿐이었고, 브랜드가 방이나 운동화도 감히 생각도 못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눈치 보며, 미안해하며, 자존심을 굽히며 친구들의 참고서를 빌려 주요 부분만 찾아 복사해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만날 밥! 밥! 저만 보면 ‘밥 묵었나? 밥 묵어라! 밥은 묵고 자나? 밥이 보약이다 아이가’ 하며 해줄 수 있는 게 밥뿐인지 다른 건 다 잊어도 끼니는 절대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밥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더 싫었습니다.

“고만 좀 하이소. 아버지 나만 보면 밥 말고는 할 말이 그리도 없나? 지금 이 시점에서 밥이 중요하냐? 밥이 중요하나 말이다. 밥은 한나도 안 중요타. 나도 친구들처럼 새 참고서 사서 공부하고 싶다. 학원이고 좋은 가방이고 신발이고 한나도 욕심 안 난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알기나 하나? 아버지가 내 마음 알기나 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전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께 그러고 나면 내 마음도 아프고 금방 후회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또 그렇게 매번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짐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안길 수 있는 부모가 아닌 내가 책임지고 챙겨야 하는 나는 아버지의 보호자였습니다. 그게, 그게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보호자라는 무거운 지게를 문득문득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짧은 팔과 짧은 다리를 가진 왜소증 환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꼭 닮아 또래들보다 항상 몇 뼘 이상은 차이가 나게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여섯 살 때, 아버지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두부 사러 나가셨나. 잠깐 일보러 나가셨나’ 하고 기다렸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 일주일. 그렇게 시간은 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하셨고, 학교에서 먹을 도시락과 소풍과 운동회 날에도 도시락을 준비하셨고, 저녁밥도 거르는 날 없이 제가 늦는 날에는 늦은 저녁밥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외모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어머니 없는 외로움이나 궁핍한 가정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전 너무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아버지 외에 연락하고 지낼 피붙이 하나 없다는 현실 또한 저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고1 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젠 정말 저는 아버지의 보호자였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때면 보호자라는 호칭이 따라다녔고,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밥 먹어야지. 쪼깨만 기다린다. 내사마 언능 떠난 밥해서 가꼬오마.”

“됐다마. 이부지 몸이나 신경 쓰이소. 내가 할끼고마.”

“미안해서 안카나. 애비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밥이라도 해야 안카겠나.”

“됐다 안카나. 이부진 아파서도 밥! 밥! 그 놈의 밥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아파서도 밥 타령만 하는 긴데. 이부진 이제부턴 몸 신경 쓰고 약이나 잘 챙겨드이소. 밥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인제부터는 내가 할끼고마.”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애비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 죽는 그날까지는 밥은 내가 할끼고마. 무능한 애비 만나 좋은 옷 한번 못 입고, 애미 사랑도 모르고 오늘날까지도 고생만 하고 있는데 니 입에 들어가는 밥은 내가 할끼고마. 이 애비가 밥밖에 해줄 수 없어 미안타. 정말로 미안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병든 몸을 세워 부엌으로 향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이 안타깝도록 처량하면서도 난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면서도 매일 밥을 하셨습니다. 반찬은 항상 김치 한 종지에 멸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밥이었습니다.

전에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아버지가 아프시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잘못되더라도 한다면 전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 처지를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지켜드려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위암에 좋은 음식이나 민간요법 등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암세포가 퍼지는 걸 더디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완치되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는 하루하루 더 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해놓고 깨우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싱크대에 기대어 힘없이 앉아계신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부지! 아부지!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잘못했다. 아부지 원망하고 미워해

서 죄송타. 아버지가 차려주는 밥만 먹어서 미안타. 아버지, 아프고도 아버지께 잘하지 못해서 미안타. 인자는 진짜로 아버지께 잘 할끼고마. 아버지, 정신차리 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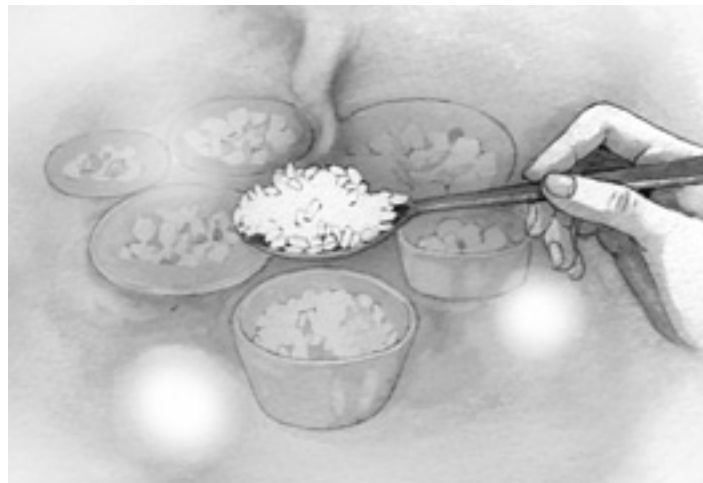
“나가 뭐가 미안타고. 무능한 아버지 만나가 나가 고생이 많다 아이가. 아버지가 니 시집갈 때까지는 밥을 해줘야 할 건데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미안타. 정말로 미안타.”

사실은 아버지 덕분에 아침밥 한번 굶지 않고 든든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고, 아버지가 날마다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아버지 내게 짐이 아닌 엄마고 친구셨는데... 왜 그런 고마움을 너무 늦게 깨달아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처음 아버지를 위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김치볶음밥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치를 쫄쫄 찢어 기름에 볶다가 밥을 넣어 섞어서 같이 볶았습니다. 맑은 계란국을 함께 곁들여 밥상을 들이면서 진작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려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딸이 차려내온 밥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김치볶음밥 한 그릇과 계란국을 맛있다며 말끔하게 다 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딸이 차려준 밥을 먹으니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 아버지와 제가 마주 앉아 먹은 마지막 밥이었습니다.

제 나이 열아홉, 가을이 깊던 10월 26일, 금방 아버지를 뵈고 학교에 등교했는데, 등교하자마자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셨다고.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번도 아버지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도 바보같이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이젠 너무 늦어버려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게 미치도록 아프고 후회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왜 언제까지 내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는다면 “와, 맛있다. 난 세상에서 아버지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아이가” 하고 말씀드릴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밥만 먹은 게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께 감사한 제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먹으라며 챙겨주었지만 차갑게 굳어버린 아버지의 마른 시신을 보고 어떻게 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차려준 밥상만이 떠오르는데...

아버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불효자가 무슨 밥 먹을 자격이나 되겠는지요. 담임선생님이 가져오신 쟁반 위에 담긴 밥을 보면서 아버지께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선화야! 아버지 이런 너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밥 먹고어서 기운차려야지.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면 아버지가 더 슬프실 거야. 응? 선화

야! 자, 어서 한 술 뜨자.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하마.”

전 밥을 떠서 입에 대주는 선생님의 손가락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 받아 먹었습니다. 눈물 반, 콧물 반이 된 밥을 말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쓰시던 옷장과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통장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 통장은 제 앞으로 된 통장이었고, 통장과 함께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선화야, 애비다. 선화야, 이 애비가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너 두고 먼저 죽게 되어 미안하고, 밥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없어도 절대 하루 세 끼 끼니 거르는 날 없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통장은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선화네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으로 쓰려고 조금씩 한 푼, 두 푼 모은 거라 많지는 않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때 쓰거라. 아무튼 아버지가 너한테 염치가 없다. 아버지가 잘 키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잘 살거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원망과 투정만 부렸으니 눈물이 흐르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떠나고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 제 나이 서른넷,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혼자 버티며 살아왔는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문득문득 아버지가 미치도록 그립고, 미치도록 외로웠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제게 남긴 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밥을 굶지 않으려, 약해지지 않으려 독하게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남들의 곱지 않는 시선도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로 전 지금 강합니다. 혼자 해먹는 밥이 쓸쓸할 때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 어김없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지켰습니다. 시금치국에 김치, 멸치볶음. 오랜 시절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차려 내오시던 그때의 밥상을 추억하며 먹었습니다. ♥

집배원인 내가 전한 편지

● 글_진상용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지난 1986년도 집배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우체국 발령을 받고 견습기간을 거쳐 근무 배치된 곳이 인천 송도였습니다.

물너울 출렁이는 서해가 훤히 내려다보이고, 멀거나 가까운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다 등푸른 바다의 각질을 하얗게 벗기며 오가는 어선들, 드넓은 갯벌 멀리 나갔던 어민들의 경운기, 소달구지를 앞세운 채 줄줄이 들어오는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 하지만 해안선 바깥 다가가서야 난 개펄이 결코 낭만을 누릴 만큼 평화롭지도, 풍요롭지도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알량한 바지락과 동죽을 찾아 개펄에 몸을 뒹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생업의 현상이었습니다.

농민과 어민의 절반쯤 섞여 살고 6·25전쟁의 산물인 판잣집들이 산비탈을 차지했는데, 언덕기슭을 따라 살림 궁색한 사람들이 뽕이갈매기처럼 동지를 튼 채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산○○번지’로 불리는 마을, 문패나 우편 수취함도 거의 없는 집들에도 한 집에 살면서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름을 몰라 편지가 반송되기도 하는 곳, 워낙 비탈이 가파르고 길이 좁은 골목이라 언덕 밑에 자전거를 세

위두고 가방을 멘 채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 산동네였습니다.

초보 집배원으로 그 구역을 맡아 우편물을 배달하기 시작한 얼마 뒤, 내가 늘 자전거를 받쳐놓는 공터에 쪼그리고 앉아 놀던 아이가 고사리 손을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편지 하나만 주세요.”

“너희 집이 어딘데?”

“저기 맨 위엿집요.”

“이름은 뭐니?”

“이, 승, 길!”

“오늘은 안 왔다. 내일 오면 줄게.”

그제야 아이가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튿날, 얼굴 가득 기대에 찬 아이는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저씨, 내 편지?”

“이런, 깜빡 잊고 안 가져왔구나. 너, 편지는 뭐하려고 그래?”

“그냥, 다른 집은 매일 주면서 우리 왜 하나도 안 줘요?”

“알았어. 내일은 꼭 주마.”

날마다 아이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빨간 자전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절름거리며 내리막 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흥장난을 하느라 더러워진 고사리 손을 내밀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집에는 편지는커녕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화요금 청구서조차 배달할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난 무허가 건물인 그 집의 번지며 거주자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버릇처럼 반복되는 둘러대기가 무색하게 아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빼놓지 않고 길모퉁이까지 달려와 내 자전거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얼얼한 해풍이 옷 틈새를 파고드는 이른 봄마중 날씨에도 내가 지나갈



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길목을 지키는 아이는 그 많은 날들만큼이나 가슴에 실망감을 쌓아두다가 나중에는 편지를 달라고 손을 내밀 의욕마저 없는지, 그냥 맥없이 서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는 아이의 순진한 동심을 헤아려 줄 심리적·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배달 물량이 많은데다 초보시절이라 모든 게 미숙하다보니, 늘 시간에 쫓기는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몸 불편한 아이가 그러는 게 안쓰러워 보이고, 만날 때마다 내일 주겠다는 농담 겸 핑계를 되풀이하기도 귀찮아 하루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우편엽서 한 장을 가방에서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방에 우표 여러 장과 판매용 관제엽서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글씨 몇 자라도 적어서 줄까 하다가 유치원 구경도 못해 글을 읽기는커녕 당소리·홀소리도 구별 못할 아이에게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운 엽서를 낭비하기보다 언젠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나름대로의 배려였습니다.

기빠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는 빈 엽서를 받자마자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뒤뚱거리며 제 집을 향해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공터에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바라보니 아이는 맨 위 자기 집 울타리 밑에 쪼그려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부지 아이에게 시달리지 않아 홀가분한 것도 며칠, 갈수록 웬지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며 아이가 차츰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쯤 그 구역을 맡은 이래 처음으로 아이의 집에 편지를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편지가 아니라 등기우편물이었습니다. 수취인은 ‘조막례’ 여자다운 이름을 갖지 못할 시절에 태어난 분들 대다수가 그렇지만 막내딸 출생 신고를 접수받은 면서기가 즉석에서 그렇게 한문으로 표기해 올렸을 거였습니다.

수소문해보니, 조막례 씨는 그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특수우편물은 수령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기에 수취인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누군가 머물다 떠난 빈집을 차지했을, 알기설기 세워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는 꼭 필요한 만큼조차 가지질 못해 집터가 웅색했고, 손질해주는 사람조차 없어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사는 집이란 표시로 울타리삼아 둘러 심은 개나리는 이미 꽃이 졌고, 사사이 해당화 가지들에는 붉은 꽃망울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병색이 완연한 할머니가 침침한 방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낮이 익다고 생각했더니, 흙투성이가 된 채 개펄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더러 본 기억이 났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던 아이와 달리 노인은 편지를 받자 겁부터 났습니다. 마치 만지면 큰일 나는 물건처럼. 글을 모른다는 할머니가 편지를 뜯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불법건축물철거 예고장’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배달한 것이 하필이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이런 내용이라니.

우울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바람벽에 무언가 붙어 있었습니

다. 언젠가 내가 아이에게 준 그 엽서였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엽서의 공간은 손때로 얼룩져 찌그러졌습니다.

생각난 김에 아이에 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 초겨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자 보상금을 챙긴 며느리가 밤중에 손자를 몰래 데려다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아이는 다른 합병증까지 겹친 채 부양능력 없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아동보호시설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편지를 기다린 게 아닐지도, 석 달 지나 봄이 오면 데리러온다는 엄마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저절로 크는 풀과 나무도 때가 되면 약속을 지켜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데, 봄까지만 떨어져 있으려던 아이 엄마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송도지역에 개발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땅이갈매기 둥지 같은 집들도 차례로 헐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할머니네 집, 이미 다른 집들은 적든 많은 보상을 받아 떠났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 때문에 갈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뒤, 숨을 거둔 노인의 시신이 화장터로 보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몇 년 뒤인가 아이가 쓴 편지가 할머니의 옛 주소지로 왔지만 그 일대가 판 세상처럼 바뀌어 버린 터여서 난 편지를 반송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연 많은 한 노인이 마지막까지 집착하며 머물던 집과 개나리 숲이 헐려간 그 자리에 지금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뽀뽀이 차지하고 송도유원지 일대는 유흥가로 변해 흥청거리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엽서처럼 한눈에 내려다보이던 해안선과 개펄은 매립되고 그 자리에 송도 국제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불과 20여 년 전의 흔적이 남김없이 지워져버렸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되었을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선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빨간 자전거를 기다리던 동심을 잊어버렸을지, 간직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형은 나의 수호천사

● 글_최병용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5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3남 4녀 중 장남인 형은 교대를 졸업하고 제주시에서 1시간여 차를 타고 간 후, 또 배를 타고 건너야 갈 수 있는 우도에 첫 발령을 받아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은 혼자 살기도 버거운 생활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주말이면 꼭 집에 와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병용아! 이번에 중학교 첫 중간고사 시험 잘 봐서 장학생 되려면 참고서 사서 공부해야 하잖아. 참고서 값 얼마인지 알아보고 형한테 편지해라. 그러면 형이 월급 타서 참고서 값 보내줄게.”

“알았어. 형!”

다음날 참고서 값을 알아보고, 형에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형, 국어참고서 300원, 영어참고서 200원, 수학참고서 200원이야’ 라고 한 줄을 쓰고 냈더니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에 달랑 한 줄을 쓰고 냈더니, 더 이상 무지막지하게 남은 편지지의 남은 공간이 커다란 부담으로느

껴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편지를 쓰다 보니 편지의 형식도 모르고, 그렇다고 호랑이 같은 형에게 살가운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걸 어찌지? 무슨 말을 더 써야 하는 거야? 별로 쓸 말도 없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달랑 한 줄 쓴 편지와 그 밑에 서너 줄을 여백으로 남기고 나머지 종이는 잘라버린 후, 편지가 아닌 쪽지를 봉투에 넣어 형에게 부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발송하고 며칠 후 도착한 ‘소액환’을 들고 우체국에 가서 돈으로 바꾼 후, 전 참고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거 참 신기하네. 편지로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그 편지를 잊고 지내던 어느 날, 한 달 만에 형이 집으로 왔습니다.

“병용이 너 이리와 봐. 넌 도대체 무슨 편지를 그렇게 쓰냐? 형이 우체부가 ‘최 선생님 편지 왔어요’ 하며 가져다주기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뜯어 봤더니 뭐? 달랑 한 줄, 그것도 금액만 적은 쪽지가 들어 있어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 너 그런 식으로 편지 쓰면 앞으로 참고서 안 사줄 줄 알아.”

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가? 참고서 값 알려 달랬으니, 그것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뭐가 잘못 됐다는 거야?’

전 속으로 구시렁대면서 형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편지글의 형식이란 것에 대해 배워서 내 편지가 얼마나 잘못 쓴 것인지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말입니다.

이무튼 그렇게 형과 저의 편지 인연은 시작되었고, 제게 있어 편지는 멀리 있는 형 대신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 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육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아들인 형을 대학에 보낸 후 우리 집은 가세가 기울어 더 이상 자식들을 공부시킬 형편이 안 되었고, 더욱이 대학진학은 꿈도 꿀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전 전라북도 익산(이리)시에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국립공업계 고등학교가 있다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공고로 진학해 기술을 배워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진학한 공고 생활은 제겐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군사정권하에서 국비로 운영되는 학교다 보니 교장부터 교사들까지 대부분 군장교 출신들이어서 학교의 모든 것이 군대와 똑같은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무료다 보니 기숙사 밥은 3년 동안 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했던 정부미로 한 것이라 국에 밥을 말면 죽은 쌀벌레 10여 마리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한 일주일엔 비위가 상해 못 먹다가 일주일 후부터는 배가 고프니 어쩔 수 없이 벌레만 건어내고 먹어야 했습니다.

군대와 똑같이 매일 새벽 6시면 기상해 구보하고, 줄맞춰 군가를 부르며 기숙사에서 교실까지 등교하고, 밤이면 불침번을 서고, 자다가 일어나 1시간씩 보초를 서야 하고, 밤 10시까지 공부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야간실습을 해야 했습니다. 집이 제주도다 보니 1년에 겨우 두 번 방학 때만 집엘 갈 수 있어 부모님께 하소연할 수도 없이 혼자 모든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힘든 기숙사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역시 형과 나를 이어주던 편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육지로 진학할 때, 형 또한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육지, 충남 홍성의 한 사립학교로 전근을 왔습니다. 그런 형에게 편지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하소연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형은 제게 편지로 답장을 했습니다.

‘병용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뎌 기술을 배우면 네가 원하던 기술자가

될 수 있으니, 잘 이겨내거라! 지금 힘들다고 피하거나 도망치면 나중에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전 형의 격려 편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냈고, 주말에 외박이 허용되는 날에는 멀어 못 가는 집 대신 형이 사는 충남 홍성으로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찾아가 형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쉬다가 기숙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고 보니 공고 졸업생의 실상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대학을 보내 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 나 대학에 가고 싶어. 선배들을 보니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희망이 없어 보여. 회사에서 대우도 못 받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는데. 심지어 어떤 선배는 월급을 타서 속옷 한 벌 사고 나니 하나도 안 남더라. 그래서 대학에 가야 하는데, 대학에 가려면 기숙사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매일 10시면 의무적으로 취침을 해야 하고, 이것저것 간섭이 많아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해야 하는데, 방세와 용돈이 필요해.’

당시 형은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박봉을 쪼개 고향인 대전에 대출을 받아 땅을 샀고 그 돈을 갚고 있었습니다. 또 제 위로 누나 두 명의 학비와 용돈을 챙기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해봐. 방세하고 생활비는 형이 어떻게든 마련해줄게’라고 답장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형의 편지는 수호천사였던 셈이었죠.

전 형이 박봉을 쪼개 보내준 돈으로 월세를 얻어 고등학교 3학년 1년간을 자취를 하면서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30여 년 전이니, 기껏해야 좀 사는 집이 곤로가 있던 시절이었고, 그마저 없



던 저는 새벽 3시면 일어나 연탄불에 냄비 밥을 올려놓고 끓여 넘칠까봐 수저로 뒤적거리며 부뚜막에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공고를 다니면서 2년 동안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 10시까지 야간실습을 하면서 공부와 답을 쌓고 지냈던 터라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책을 헌책방에서 구해다가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에 매진하는 사이 형은 그 먼 홍성에서 전북 익산까지 기차와 배, 버스를 갈아타며 제가 자취하는 집으로 찾아와 형도 사먹기 힘든 삼겹살을 사주고 가기도 하고, 일주일간 먹을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당당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던 대학진학을, 그것도 4년제 사범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지만 당장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형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첫 등록금만 좀 도와줘. 대학에 진학한 뒤부터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다닐게. 내 생활력 알잖아.’

‘그래 잘했다. 등록금 걱정은 하지마라. 형이 1년 동안 네 등록금 해주려고 조금씩 적금을 들었으니,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거라.’

형은 언제나 똑같이 수호천사 같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눈물 나게 고마웠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 언젠가 내가 성공해 형의 은혜를 꼭 갚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형의 도움으로 대학생이 되었지만 대학생살이 저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찾아다니며 해야 했고, 방학 때는 돈을 좀 많이 주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대학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시점에서 제 대학 생활은 한계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ROTC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4학년 2학기에는 졸업시험과 ROTC 임관시험이 겹쳐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번 돈으로 자취 방세며 각종 생활비를 내며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형

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형! 이제 졸업이 한 학기 남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 졸업시험과 ROTC 입 관시험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어. 내년에 졸업해서 바로 군대에 가면 월급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6개월 정도 생활하려면 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거 같아. 그동안 내 힘으로 벌어서 살았지만 이제 거의 한 계상항에 닥친 것 같아. 시간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지만 시험 준비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 정말 마지막이니 딱 한번만 도와줘. 내년에 군대에 가서 월급 타면 꼭 갚을게.’

그리고 며칠 후,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미리 얘기하지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해? 형은 네가 혼자 스스로 잘 사는 줄 알고 안 도와줘도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힘들게 학교 다니는 줄 몰랐구나. 미안하다. 형이 다음 달 월급 타면 어떻게든 50만 원 마련해서 보내 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시험도, ROTC 입관시험도 둘 다 통과해라.’

그 편지를 받고 전 형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후 형이 보내준 50만 원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생활하여 무사히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장교로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의 월급도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선배 · 후배 · 부하들 챙기다 보면 매달 마이너스통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군대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우다보니 어느 덧 형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공수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판에 형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10년간 직업군인으로 지내야 했고, 1995년 소령으로 전역한 전 원래 꿈이었던 중학교 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제대를 하고 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교사 월급은 군인보다 더 박봉이었습니다. 제대

하기 직전 군대에서 받던 봉급보다 오히려 20만 원 가량 적었고, 보너스 달은 두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느 덧 저도 이제 15년차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형은 올해로 35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저의 수호천사였던 형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결심했습니다. 35년을 평교사로 묵묵히 교단을 지키다 명예퇴직을 하는 형을 보니 중학교 1학년 첫 편지를 시작으로 35년간 제 곁에서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던 형이 힘든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형의 수호천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명예퇴직을 하던 지난 2월 27일, 형에게 모처럼 긴 편지를 썼습니다.

‘형! 그동안 내 인생에서 수호천사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동안 형에게 편지를 쓸 때는 늘 내가 아쉽고, 어렵고, 힘들 때밖에 없었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나머지 형의 인생 멋지게 잘 살아.’

지금부터는 내가 형의 수호천사가 돼 줄 테니 형이 아쉽고, 어렵고, 힘들 때 내게 편지를 해. 언제든지 형 곁으로 달려갈 테니….

형! 명예퇴직 축하하고 이제야 형 은혜를 조금 갚을게. 옛날같이 소액환이란 제도가 있었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송금해 줄게. 형이 얼마 전부터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 멋진 도자기 만들면 내게도 하나 보내주고, 알았지?

참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합격했다고 형이 시계를 사줬던 기억이 30년 만에 갑자기 떠올랐어. 그 당시 정말 비쌌을 텐데 그 시계 사주면서 형이 그랬어.

‘손을 씻기 위해 시계를 벗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꼭 벗어서 주머니에 넣고 씻어라. 그래야 안 잃어버린다’란 말. 나 그 말을 지키며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시계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쿿가에서 그 말이 땀도네.

왜 이렇게 난 형한테 받은 기억밖에 없을까? 몇 년 전, 형에게 빌린 돈 원금 50만 원 갚은 것하고, 김치냉장고 하나 사 준거, 그것 외엔 내가 형에게 해준 게 없네.

이번에 퇴직기념으로 물레 사라고 몇 푼 송금해서 ‘휴, 조금 형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했더니 하필 최근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고등학교 입학할 때, 형이 시준 시계가 또 생각이 날까?

내가 잠시 형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았다고 자만하고, 자위하고 있으니 아마 하느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아직도 멀었다. 이놈아!’ 하시는 뜻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

옛날 말이 하나도 틀린 것 없고 다 진리라고 하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맞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바로 ‘형만 한 아우 없다’야.

30여 년 전 손목시계 값 알아보고, 30년간 이자까지 환산해 갚아야 결국 형의 은혜를 다 갚았던 생각이 들 거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결국 형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지. 지금 다는 못 갚아도 언젠가 내가 꼭 갚을게.

형 퇴직했으니 농사 열심히 짓고 건강 잘 챙겨.

그동안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버릇없어서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며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주말에 내가 삼겹살하고 소주 사 갖고 자주 갈 테니 유기농 채소 좀 많이 가져 놓고. 알았지? 형, 명예퇴직 정말로 축하해! 그동안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고생했고, 고마워.’

이렇게 모처럼 긴 편지를 형에게 띄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참고서 값만 달랑 쓴 쪽지 편지를 받았을 때의 형의 마음을 이제라도 조금 위로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

고추장과 편지가 남편을 빼앗아가다

◎ 글_임복희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1969년 한창 풋풋한 젊은 나이에 이발사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북 장수 어느 산골마을 인구 몇 안 되는 동네 이발소에 서 이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벽에 걸린 가죽벨트에 면도날을 쓱쓱 갈아대고, 연탄 위에 얹힌 양은대야에 물을 데워 수건을 빨아 철사줄에 말려가며 어찌다 손님 한 분 왔다갈 때마다 빗자루로 머리카락을 쓸어 담아가며 배운 지 몇 년 후,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북 익산으로 옮겨 어느 이발소에 취직과 동시에 저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나의 신혼 꿈도 잠시. 남편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서독의 광부로 가려고 준비했나 봅니다. 그때는 한창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가 많이 갈 때였습니다.

1970년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서독으로 떠났는데, 내 뱃속에는 어느덧 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월 보내주는 생활비와 편지에서 나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어느 날, 한동네에 사는 아가씨가 서독에 간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서울의 유명 여자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는 그 아가씨는 “부탁할 것 없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무엇을 보내줄까 며칠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다진 소고기와 참기름, 통깨를 넣고 최고로 맛있게 고추장을 볶아 커피 병에 담아 애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와 아들 사진을 넣어 보냈습니다. 잼과 버터 대신 식빵에 고추장을 발라먹는다는 남편의 편지가 여러 번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에게서 온 편지의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생활비 또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마다 3년 계약이 끝나면 어차피 한국에 가 보았자 일 자리도 구할 수 없으니,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철석같이 믿고 또 믿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3년 반 후, 마침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은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내 생활비를 보내줘 나와 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일 년에 겨우 두서너번 편지가 오고, 나 역시 독일이나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꼬부랑글씨를 그려가며 행여 주소가 잘못 쓰여 안 들어가고 반송될까봐 마음을 졸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남편이 어떤 큰 사업을 하느라 바빠, 시간이 없어 소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국제전화도 싸고 만 원짜리 카드 한 장이면 서너 시간씩 통화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다 몸이 아파 전화하는 날이면, 바쁘다고 재빨리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진학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가 영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놀러왔는데 친구아이들이라 했습니다. 하기가 그땐 교민들이 그리 많질 않아 주말이면 자주 모였더니 그럴 법도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 믿은 탓인지 아니면 내가 완전 바보 멍청이였는지 제 자신을 지금껏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이래저래 피하던 남편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천하의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고2가 되자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 남편이 선뜻 아이를 캐나다로 유학시켜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요. 아들이 캐나다로 가야만 나도 뒤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아 있는 방 2개짜리 집이 99칸짜리만큼이나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동네 이집마들과 어울리며 노닥거리고 고스톱을 치고 어떤 땐 뒷산에 올라가 한바탕 소리 내어 울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아이고, 남편 그림지도 않아?” 하면 “혼자 이렇게 편한데 뭘...” 하며 동네에 나도는 소문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간 아들 역시 편지 한 통 없었습니다. 후에 들은 얘이지만 아들이 아버지 일로 충격을 받아 2년간 학교에도 안 가고 마약에, 술에, 담배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끈질긴 설득 때문인지, 아니면 이 엄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함인지 겨우 마음을 잡아 다시 공부해 대학에 들어가 남들보다 4~5년 늦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영어를 잘 못해 대학에 늦게 들어갔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도 전혀 없고 캐나다가 살기 좋고 अच्छ고저찌고 내가 궁금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엄마가 한번 다녀가라는 간단 명료한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차마 모든 얘기를 편지로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2000년 가을,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불과 14시간 동안에 주마등처럼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곳회곳 흰머리가 나 있을 남편, 어엿한 청년의 대학생이 되었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설레어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를 반 바퀴 도는데도 서울에서 토론토까지 낮만 계속 되는 게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는 아들과 남편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은 어엿하게 잘 생긴 청년으로 변해 있었지만 남편은 머리가 회곳회곳한 얼굴로 무척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남편이 해외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머리가 희어지고 얼굴이 저리 상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밤 12시가 되어서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에 자리 잡은 작고 깨끗한 아파트. 이것저것 가져온 짐을 풀고 나니 밤 12시가 되었고, 어느 중년의 여자가 우리 집 현관문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 내 나이와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는 “아줌마, 나 ○○예요, 옆집에 살았던...”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얼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과 그 여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사실인 즉 1972년 편지와 고추장 심부름 갔다가 서로 외로워 오간 게 그만 정이 들어 같이 독일에서부터 살게 되어 한국에는 갈 수가 없으니,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졌는지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꼭 껴안고 있다는 느낌 외에는...

아들이 나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넷 모두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찌 이럴 수가... 나는 머리가 텅 비어버렸는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내자 아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를 나이가 가라 폭포에 데리고 갔습니다. 시퍼렇게 쏘아지는 저 물살이 꼭 내 눈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폭포 근처에 인접하자 나는 모처럼 한없는 눈물을 몇 분 동안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알아차린 듯 엄마 온몸이 다 젖어 감기 들겠다 하며 애꿎은 비닐 코트만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엔 아이가 셋, 그 여자 역시 간호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목하게 다섯 식구가 사는 집안 분위기로 보아 내가 감히 깨버릴 수가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중죄인처럼 내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연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장가갈 땐 다시 오마” 했습니다.

남편의 형상만 내 가슴 속에 그림자로 남긴 채 나는 토론토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한숨 자고나도 두어 시간, 또 한숨 자고나도 두어 시간, 아들이 쥐어준 수면제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주위에서는 내 남편 얘기를 모릅니다. 누가 말하더라도 “혼자 오래 사는 게 길들여져 편하더라, 캐나다 가보니 말도 안 통 하고 외롭고 못 살겠더라” 하며 얼버룹니다.

몇 년 전에는 아들이 결혼해 캐나다에서 아들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나이 먹으니 고향이 그리고, 형제가 그리워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는 언제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 충격으로 나는 즐거움을 봐도 즐거운 줄 모르고, 슬픔을 보아도 슬퍼할 줄 모르는 완전 바보가 된 듯 싶습니다.

요즈음 나는 가끔 이주 가끔 ‘내가 왜 그때 편지와 고추장을 보냈을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

말자 언니야, 고마워!

● 글_이문혜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4월의 따스한 봄이라 그런지 마음도 무겁고, 항상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내 삶의 무거움을 자꾸 느낀다.

‘이날 이때까지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자상하신 시어머니의 애교 있는 며느리?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친정엄마의 아들이자 딸이자 버팀목?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하고 나의 추억여행을 떠나고픈 생각에 다락방을 찾았다. 쾌쾌한 냄새와 차가운 기운이 방안을 채우는 어두운 다락방. 난 다락방에서 오래된 책과 일기장을 꺼내 옛 추억을 되새겨 본다.

오래 묵은 신문지와 가나다라가 비뚤배뚤 적혀 있는 달력 종이를 발견했다. 나는 내가 한글을 깨우칠 때 쓰던 건가 싶어 유심히 보니 내 것이 아닌 우리 할머니의 글씨였다.

할머니께서 빼곡히 적은 여러 단어들...

1989년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난 방학을 너무 싫어했다. 내 생활이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다. 늦잠을 자고 싶거나 아침밥을 거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친구들과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고 싶어도 난 집에 있어야 했

다. 그 이유는 우리 할머니 때문이었다. 친할머니께서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다. 엄마가 공장에 일 나가면 항상 할머니의 말동무를 해드려야 했고, 끼니를 챙겨드려야 했다.

친구들이 “문혜야! 노~을자” 하고 대문 밖에서 외치면 할머니는 마루청에 앉아계시다가 신발을 내던지곤 “놀긴 뭘 놀아. 언능 안 나가” 하면서 내 친구들을 내쫓곤 하셨다.

그래서 난 방학이 너무 싫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도 있고, 특별활동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와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학에는 내 자유시간이 없고, 주산학원에 갔다 오고 나면 할머니 옆에서 공부해야 하고, 하기 싫은 주판을 튕기다가 할머니가 다리 편찮으시다 싶으면 주물러 드려야 했다.

그런데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오신다는 거였다. 엄마의 형제자매 중에 아들이 없어 이번에는 엄마가 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다. 다른 이모들이 집안 형편이 좋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오셔야 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보다 다섯 살이나 더 많았지만 그래도 외할머니는 정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외할머니는 나의 수호천사였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했다.

친할머니·외할머니께서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돼 버렸다. 적적하실 때 말벗이 되어주시고, 친할머니의 지팡이 역할도 해주셨다.

내가 한결 편해진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셨다.

“그 노무 할마시. 나를 바보로 아냐? 내가 글을 모른다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허구한 날 만날 저 글 몰라? 안 보어요? 하고 있어. 나보다 다섯 살 생(언니)이라고 많이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그래도 내가 사

돈인데 어디 고스톱의 고자도 모르면서, 숫자 개념도 없으면서 어데 나를 무시하노?”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세요?”

“너희 엄마가 내보고 생이 동상 하자지만, 동상은 무신. 내 글자 모른다고 무시는. 그 노무 할망구 고스톱도 칠 줄 모르면서. 그 할마시랑 있으면 심심해 죽겠구만...”

“아이구.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너무 성내지 마이소.”

“됐다 마. 치아라. 너희 친정엄마 멀리 이사 보내빠라. 안 그러면 내가 나간 데이. 말동무는 무슨, 만나면 싸우는데...”

“아이고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불쌍하잖아요. 봐주이소오.”

“그래? 그래 알았다. 이번 한 번만 봐준다고 해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엔 내가 나가 빠다. 알았제?”

그렇게 할머니는 노여움을 푸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상, 동상! 머하는가?” 하시며 외할머니께서 오셨다.

“동상 사돈, 화났나. 그래도 내가 생인데, 미안타. 동상이 글씨 모르는 줄 몰랐다이아. 그럼 내한테 말하지 그랬드노.”

그리고 할머니는 밥상을 방바닥에 펴시고 싸 짚어 오신 달력하고 연필을 꺼내더니, 긴 자로 칸칸을 그리고 ㄱ, ㄴ, ㄷ, ㄹ... 쪽 나열을 하셨다.

“동상, 사돈. 내가 글을 가르쳐 줄꾸마.”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보시지도 않고 콧방귀만 뀌더니 “어따가 반말이요? 나 엄연히 사돈인기라” 하셨다.

“알았어, 알았으요. 미안해요. 이제부터 다시 존댓말 할게요. 내가 이거 적어 줄 테니까 이거 낼까지 외우소. 알았지요? 아무리 늙어 죽어도 글을 알고 죽어야 한다가이. 그래야 내가 멀리 이사가도 편지 보낼 거 아이요. 내가 한글 갈켜



줄 테니까이 우리 열심히 해 봅시데이. 그리고 사돈은 나한테 고스톱하고 노래 가리켜 주시오. 그 요즘 최신곡 <미쓰고> 그거 고거 좀 갈켜주시오. 내가 여태껏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서 그런지 우리 영감이 나보고 매일 재미없다고 하더만은 고스톱하고 고거 <미쓰고> 그 노래 잘 안배워지네.”

그렇게 할머니의 초급 한글 깨치기와 고스톱 수업이 시작되었다. 친할머니



는 60평생을 글을 모르고 살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외할머니께서는 끝까지 한글을 알아야 한다며 글을 가르쳐주셨다. 그렇게 시작해 할머니와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한글 깨치기에 돌입했다.

몇 번의 실패도 있었다. 친할머니께서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서 당신 뜻대로 안 되면 책을 얹어버리고 안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 다반사였다.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하셨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어느 정도 한글을 읽는데 성공을 하셨고, 웬만한 신문도 거뜬히 읽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친할머니는 더 의기양양해하시며, 할머니와 마실 나갈 때면 간판에 적혀있는 글을 펜스레 크게 읽으며 “부, 산, 떡, 집 여기 있네. 용호문방구 옆이네” 하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실 정도로 크게 읽으셨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 맘을 아실까? 항상 까막눈이라고 나보고 우편이 왔는데 “뭐라고 적혀 있노? 너희 삼촌 전화번호 어땠노?” 하시면서 매일 나를 귀찮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사라졌으니 말이다.

그리고 매일 달력에 각종 생일이며, 행사 기념일 등을 이제 할머니께서 메모하셨다. 그전에는 그냥 날짜에만 동그라미 정도만 체크하셨는데, 글을 알고 난 뒤부터는 꼭 메모하는 습관을 챙기는 듯했다.

그리고 친할머니는 외할머니께 고스톱과 가무도 가르쳐주시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서로 서로를 챙겨가면서 많이 사이가 좋아지셨다.

그래도 매번 외할머니께서 고스톱에서 저서 매일 싸움 아닌 싸움을 하시고는 다시는 고스톱을 안 친다고 방문을 닫고 가시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 친할머니께선 쪽지 아닌 쪽지를 현관에 꽂아두면서 “말자 언니야, 미안해!”

하며 애교스러운 쪽지를 보내셨다. 그럼 외할머니는 글자를 가르치신 보람을 느끼신다며 흐뭇해 하셨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친할머니께서 당뇨가 있었는데, 더 안 좋아져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외할머니께서는 친할머니 침대 옆에서 “또해야. 또해야. 인나라. 인나라. 인능 내랑 고스톱 쳐야지” 하면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계셨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의식불명에 우리 가족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산소호흡기로 할머니는 보름여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외할머니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 모두 돌아가신 할머니를 슬퍼했지만, 외할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였다. 외할머니께선 “영감 복 없는 우리 둘이 꿈쩍이 잘 맞아서 재미있었는데, 영감 복 없는 년이 사돈 복도 없네, 아이구 아이구” 하시면서 매일 밤낮을 우셨다.

삼일장을 치르고 난 뒤, 할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달력 한 장을 발견했다. 그 달력 앞장에는 각종 생일과 외할머니한테 고스톱 쳐서 딴 돈이 일일이 메모되어 있었고, 외할머니와 꽃놀이 가셨던 날과 아버지가 용돈 주신 목록이며, 할머니랑 디워 누가 먼저 화해했던 것들이며, 밥상에 올랐던 반찬 등 모든 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뒷장 여백에는 평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추억담과 젊었을 때 힘들었던 글들이 비뿔배뿔 한 자 한 자 적혀 있었고, 다음 장에는 윗놀이 판을 그려놓고 말자, 또해 하는 할머니 이름과 순번이 적혀 있었고, 그 뒷장에는 고스톱 그림에 점수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미쓰고> 가사도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무언가 짐작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평소 기념일을 잘 챙기지 못하

칼슘 듬뿍... 맞춤형 어린이 전용식빵 '헬로키티 헬로모닝'

캐릭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지원매니아

(주)지원매니아(대표이사 김영철)는 'Global No.1 Character Business'를 지향하는 캐릭터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캐릭터 디자인과 상품기획에서 제작·유통, 라이선스, 스토어 매니지먼트까지 세계 수준의 핵심역량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 콘텐츠 사업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국내 건전한 중소기업체의 성장과 사업 확대를 위해 아이템개발 상담과 컨설팅 창구를 항시 개방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규 아이템 '헬로키티 헬로모닝'은

특히 국내 유수의 200여 개의 제조, 유통 업체와 이미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으며, 20여 년 간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진행 해온 국내 최대의 콘텐츠플랫폼 회사다. 일본 산리오사(대표캐릭터-헬로키티 외)의 국내 사업권자이며, 서울대학교-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이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보마이(BOMAI)', 코레일과의 KTX-mini 캐릭터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콘텐츠 플랫폼 전문기업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과거 문구·팬시상품·완구·목욕용품 등의 카테고리로부터 가전제품, MP3 등 디지털 상품, 식품, 금융상품 등으로 사업영역을

어린이와 학생의 발육과 두뇌성장에 좋은 '맞춤형 식빵'으로 (주)지원매니아와 (주)파리바게뜨 사와의 제휴로 탄생했다. '헬로키티 헬로모닝'은 어린이 성장발육에 필요한 칼슘이 600mg 함유되어 있으며, 크기도 일반 식빵의 절반인 어린이 손바닥 정도로 어린이가 먹기에 안성맞춤이다. 평소 까다로운 식성으로 칼슘섭취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적합한 신상품으로 5월까지 '헬로키티 헬로모닝' 패키지 속에 미니 동화책을 넣어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출시될 예정인 헬로키티 케이크 역시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 기업은행 선풍역지점 고객

● (주)지원매니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 청담빌딩 12층

TEL : 02-3443-7447 소비자 상담실 : 080-343-7447

가맹점문의 : 1599-8833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메모하는 습관이 없으셨던 외할머니를 위해 1989년 달력 한 권을 빼곡히 정리해 놓으셨다.

그리고 맨 뒷장에 “말자 언니야, 고마워요. 사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하는 짧은 편지! 그 글자 속에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깊고 의미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 달력을 보시고, 외할머니는 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8년 후, 친할머니 곁으로 따라가셨다.

그렇게 혼자 다락방에서 홀짝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올라오셨다.

“뭐하노? 이번 어버이날 사돈하고 여행계획 잡아놨나? 사돈하고 같이 놀러 가야지.”

“어? 어 잡아놔. 가까운 온천에 가자.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가 편하냐?”

“편하지, 안 편해도 우짖끼고. 외로운 사람끼리 사돈도 혼자고 나도 혼잔데.”

“엄마는 친할머니·외할머니 생각 안 나냐?”

“나지? 왜 안 나긔노. 나도 친할머니·외할머니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사돈하고 자주 여행 가는 거다.”

“그럼 엄마도 우리 어머니께 편지 한 장 써라.”

“편지? 아, 그때 그거? 나도 편지 한 장 써서 사돈 줘볼까? 너도 신랑한테 한 번씩 편지 쓰고 해라. 신랑 있는 게 좋은 거다. 있을 때 똥수 갈제? 나중에 없으면 있을 때 잘 해줄 걸 한다. 이런 날씨에 편지 한 장 써주면 신 서방도 안 좋아라 하긔나. 나도 사돈한테나 편지 한 장 써볼까?”

어두운 다락방에서 어머니와 나는 과거 두 할머니의 추억을 되새기며 추억들을 안고 내려왔다. 오늘 집에 가서 결혼 전에 자주 적었던 편지를 한번 적어 볼까 싶다. ♥

여성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패션주얼리

기업은행 남대문지점 고객
(주)밀레니엄영우 문순자 부회장



여성이라면 누구나 주얼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화사하고 우아한 주얼리를 거부할 여성이 있을까? 주얼리는 센스있는 여성의 패션을 완성시켜주는 필수아이템이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가끔은 단아한 모습으로 여성 패션에 마침표를 찍는 패션주얼리가 여심을 유혹하고 있다. 올해 주얼리는 더욱 화사하고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명한 색채와 강렬한 컬러 매치가 유행하고, 옐로우·핑크·파스텔톤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소재 면에서는 금값 상승으로 실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패션액세서리로 는 뱅글과 같은 이국적인 아이템들과 화사한 컬러의 우드 소재 및 체인이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얼리는 파인주얼리와 커스텀주얼리로 나뉜다. 파인주얼리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비싼 재료를 기본으로 한 14K 이상의 진보석에 속하는 제품을 일컫고, 이보다 저렴하고 실용적인 소재로 만든 모든 패션액세서리 아이템들은 커스텀주얼리라고 부른다. 커스텀주얼리, 즉 패션주얼리 중 20~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대부분 신주(황동)로 만들어지는데, (주)밀레니엄영우는 이 분야에서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문순자 부회장은 (주)밀레니엄영우의 제품을 “파인주얼리와 패션주얼리의 중간 단계”라고 설명하며, “파인주얼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명품주얼리에 대한 대리만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패션주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디자인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에요. 파인주얼리의 경우 디자인이 화려해질수록 가격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지만, 패션주얼리는 가격경쟁력이 있어 디자인의 역량을 보다 폭넓게 발



기업은행 남대문지점의 양영재 지행재(왼쪽)은 업계의 리더로서 (주)밀레니엄영우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휘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심플한 디자인은 물론 파인주얼리에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화려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제품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1979년 주얼리 도금공장으로 첫걸음을 뗀 (주)밀레니엄영우는 30년 이상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디자인·캐스팅(주조)·도금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패션주얼리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프리마베라’를 비롯해 ‘매직미로’, ‘오베로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도매시장과 수출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주)밀레니엄영우의 가장 큰 강점은 주얼리의 시작 단계인 디자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도금까지 전 공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패션액세서리 업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마케팅이나 일부 공정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주)밀레니엄영우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춰 신속한 신상품 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공정별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차별화된다.

중국 청도와 경기도 수원에 각각 캐스팅공장과 도금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금공장의 노하우는 국내외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우수



하다. 일례로 액세서리 도금의 표준으로 불리는 로동도금을 국내에서 패션액세서리 부문에 최초로 시도해 보편화시켰을 정도로 액세서리 도금 분야에서는 선두주자임을 자랑한다.

최근 (주)밀레니엄영우는 해외 매출이 부쩍 늘었다. 50%를 유지하던 수출 비중이 70~80%로 높아진 것.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유럽지역을 비롯해 일본·중동·남미 등 전 세계 25개국 70여 바이어들에게 꾸준히 제품을 공급하며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해에는 1백만 불 수출탑 수상의 쾌거를 거뒀고, 내년에는 3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뒀고 있다.

(주)밀레니엄영우의 제품이 이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주)밀레니엄영우는 15년 전부터 디자인팀을 운영해오며 꾸준히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해왔고, 최근에는 디자인팀의 역량을 강화해 연구소 인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각국의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전 세계의 주얼리 정보와 트렌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데다 국내 업체로는 드물게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수시로 해외보석 전시회에 참가,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국내 고객들의 선호도 분석을 병행해 늘 독창적이고 차별화

발을 닦아준다는 것

얼마 전, 오랜만에 대학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한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사실 40대 중반에 이직(移職)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나, 어머니 발 닦아드렸다.”

“무슨 소리야!”

“이번에 새로 옮긴 회사의 교육 중에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서 퇴근 후에 어머니 발을 닦아드렸는데... 나 참 많이 울었다.”

대야에 물을 준비하고 어머니의 양말을 벗겨드릴 때만 해도 만면에 웃음을 머금었던 친구. 하지만 한 번도 닦아드린 적 없는 어머니의 발을, 꼬글꼬글해진 발을 닦아드리는 순간 친구의 어깨는 서서히 들썩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꼭 숙인 채 당신의 발을 닦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오던 울음을 꺾꺾 삼키던 친구는 끝내 어머니의 발을 잡은 채 껴끼끼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한 손으로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한 손으로는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지 못하고 마른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친구의 얼굴은 눈물콧물 범벅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려 본 적 없는 저는 그저 유구무언(有口無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어머니 발 한 번 닦아드려 봐.”



목이 탄 듯,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친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의 말은 마음 한쪽에 가시처럼 박혀 어머니를 찾아볼 때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빠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뿐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저녁,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초등학교 4학년인 어린이가 제 어머니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발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까. 집안에 오랜지향이 가득했지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발마사지해드리고 있어요.”

“왜 갑자기 발마사지를 하고 그래요?”

“어린이가 아로마 오일을 치우다가 옆질렸어요.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아들이 수건을 가져와 깔고 딸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 돌이 마사지해주네요. 명중이는 마사지를 하다가 남은 숙제를 하는 중이에요.”

은근히 아내가 부러워지면서 내가 없는 중에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파티에 끼어두고 싶어 슬쩍 아이들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발마사지해 줄래요?”

“앹. 무좀 발.”

두 녀석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대부분 발에 무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제 무좀은 집안 내력입니다. 어쩌다가 아버지의

발이 제 몸이 달으면 아이들은 똥이라도 만진 것처럼 기겁을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지나친 반응이 어떤 때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발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발인데...”

“어머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운 발인데...”

아내는 아이들 보란 듯이 제 발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묘하게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슬쩍 발을 뺐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무좀 걸린 발을 만지는 게 좋기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 해요. 발이 퉁퉁 불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원발 더 마사지해드려야 해요.”

무슨 일이든 누나에게 지기 싫어하는 명중이는 자기가 숙제를 마쳐 하는 사이에 누나가 어머니 발을 더 많이 마사지를 했다고 생각했던지 누나가 한 만큼 자기도 어머니 발을 마사지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발이 너무 불었잖아요. 다음에 다시 해주세요.”

동생에게 묘한 경쟁심을 느끼는 어진이가 열린 대야를 치우고 수건으로 어머니 발의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명중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명중아! 아버지 발 해줄래?” 하며 슬쩍 발을 내밀며 너스레를 떨어보았습니다. 순간 명중이가 울음을 툇 그치고는 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무안해진 발을 슬그머니 제자리로 끌어당기는데, 혼자되신 지 15년이나 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처럼 어머니에게 그랬던가?’

5월이 가기 전에 마음 한쪽에 통통처럼 박혀 있는 가시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처럼 울까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까요? 자식을 키우다보니, 아이들이 스승입니다.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 2, 4학년애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서랍 속의 사랑》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금은 낡은 아버지다.

반성을 하고 말고는 자네들 몫일세

끼얇게 어둠이 내린 학교 운동장. 차갑기만 하던 형광등 불빛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술술 불어오는 밤의 향기도 싱그럽기 그지없다. 학교도서관 유리창에는 한창 공부에 열중인 아이들의 모습이 투명한 사진처럼 비친다.

아간자습이 끝나는 밤 10시. 몇몇 아이들이 더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문단속을 당부하고 도서관을 나섰다. 키 큰 나무들이 늘어선 화단을 지나 정문을 향해 걷고 있는데, 어두침침한 농구장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다.

“이봐요, 농구 그만하고 나가라니까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염병.”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아, 선생님 끝째 이 두 사람이 농구 그만하고 나가라니까 도무지 말을 안 듣고...”

두 젊은이는 들은 척도 안 한다. 탁, 탁, 탁탁... 농구공 튕기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다.

“이봐요, 밤이 늦었는데 그만들 가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두 친구가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끔 쳐다본다. 불쾌한 얼굴이 술잔이나 걸친 모양새다.

“이 학교 선생인가 본데? 에이 쉬발!”

“그러게..., 근데 뭐? 어쩌라고? 농구 좀 하면 안 돼? 왜들 지랄이야. 쪽팔리게 씨.”

허참, 어처구니가 없다. 쓴웃음이 나온다. 예전 같으면 거꾸로 피가 솟구쳐 녀석들의 면상을 이마로 박아버렸을 거다.



한 녀석이 나를 노려보더니
키득키득 웃는다. 작은 체구에
안경 쓴 쌤님이라, 만만해 보이
는 모양이다. 다른 녀석이 건들
거리며 내게로 다가온다. 녀석
은 이마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오더니 손등으로 내 뺨을 툭툭
치며 말한다.

“씨발, 나…, 똥치고 싶냐?”

정문 쪽을 흘깃 보니 마침 귀
가하는 학생들이 10여 명 있다.
나는 소리쳤다.

“애들아! 너희들 거기 서 있
어. 정문을 막아!”

아이들이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하는 사이, 내 뺨을 툭툭 치며 협박했던 친구는
어느새 교문 밖으로 빠져 나갔다. 그러나 술이 좀 과했던 한 녀석은 내게 손목을 잡
혔다.

“아! 이거 놔, 씨발! 쌤님이 아이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냐?”

“그래, 쪽팔려 죽겠다. 아무렴 그렇고말고.”

교문 밖으로 도망 간 녀석의 입에서도 욕설이 낭자하게 흘러나온다. 제자들이 보
는 앞에서 이 무슨 망신살인가. 실랑이를 벌이며 버티기를 10여 분. 드디어 경찰이
당도했다.

“이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욕설을 하고, 내 뺨을 툭툭 치며 협박을 함이다. 기가
막혀서…”

녀석들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발뺨을 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감히 쌤님에게 욕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나 참…”

경찰들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결국 지구대로 옮겨 시비를 가리게 되었다. 지

구대장은 위엄 있는 어조로 두 친구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당신들은 폭력과 모욕죄 현행범으로 기소될 것이요. 이의 없지요?”

술이 덜 깬 친구는 구석에 모로 앉아 여전히 투덜거리고, 한 친구는 체념한 듯 땅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난국을 어찌해야 하나 싶은 모양이다. 이제 27세, 젊은
혈기로 객기를 부리더니만, 목이 한 자나 늘어진 꼴을 보고 있자니 측은한 생각이
든다. 문득 연민을 비집고 떠오르는 기억… 별것 아닌 일로 내 뺨을 치며 훈계하던
담임쌤님, 거들먹거리며 사람 우습게 취급하던 파출소장님, 귀찮은 듯 회전의자에
돌아앉은 채 반성문이나 쓰고 가라던 검사님… 고만고만한 권력자에게서 받은 모
욕과 분노감은 여전히 소화불량인 채 늑막 언저리에 남아 있다.

청년들을 처벌한들 내 기분이 나아질 것도 없다. 녀석들 신세만 꼬이게 될 뿐. 나
는 조서를 꾸미고 있는 경찰에게 다가갔다.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젊은이 둘이 깜짝 놀라 의외라는 듯이 나를 쳐다본다.

“고소하지 않겠네. 반성을 하고 말고는 자네들 몫일세. 사과받고 싶지도 않네. 처
벌이 무서워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만 두게. 이제 그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

두 젊은이는 잠시 멍한 표정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네. 그만 가시게.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네들 양심이 하는 걸세.”

경찰에게 수고 끼쳐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는 동안 두 청년은 밖에서 여
전히 서성이고 있었다. 사죄의 뜻으로 술 한 잔 내겠다고 간청하는 친구들을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날 점심시간, 경비 아저씨가 환한 얼굴로 인사했다.

“선생님, 아침에 어제 그 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다고 하면
서 용서를 빌더군요. 허허허.”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정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
상담 교사로, 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역었다.

질투는 부부의 힘



어느 집의 아버지 제삿날에 두 형제 내외가 모였다. 제사를 잘 모시고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동생 내외가 형네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일로 약간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우회전을 했어야 빠르는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늦었다고 아내가 타박했다. 같이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며느리 입장에서 늦어 미안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화가 났다.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운전해요.”

“나한테 운전대를 주거나 하고 그런 말을 해요.”

“운전을 웬간히 잘해야 운전대를 주지...”

“아이고 술 마시고 대리운전할 때는 언제고...”

언쟁이 독백조로 계속 되자 그걸 말릴 요량으로 형이 나섰다.

“야, 너네는 그래도 좀 굶은 주제로 싸운다. 우리는 고등어 한 토막 때문에 싸우는데.”

그러자 형의 아내가 발끈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거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거지.”

형은 머쓱해진 나머지 말머리를 돌렸다.

“어어,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매일 청소하잖아.”

“말 똑바로 해요. 남이 들으면 내가 매일 퇴직한 서방, 집에서 머슴으로 부리는 줄 알겠네. 당신이 정말 매일 청소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잖아. 현관의 신발정리는 내가 다 한다. 젊은 사위 늙은 손하나 까딱 안하는데...”

“내가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했어. 서방님, 내가 요새 형님 때문에 미쳐요, 미쳐. 어찌나 사위를 질투하는지. 글썄 지난번에 애 낳으러 갔을 때도 진통이 오래 걸려 사위가 밥도 못 먹고 분만실 앞에서 애를 태우는 게 하도 가엾어서 김밥 한 줄 사다가 줬다 우. 그랬더니 내가 사위한테는 김밥을 사다 바친다고 하면서 그 애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러는 거 있죠.”

“아, 그거 내가 틀린 말 했나? 저번에도 그 늙 밥상에는 고등어가 오르더구먼.”

동생 내외는 자신들의 언쟁은 까맣게 잊고 형님 내외를 보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형님, 아주버님한테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세요. 질투는 애정결핍에서 온다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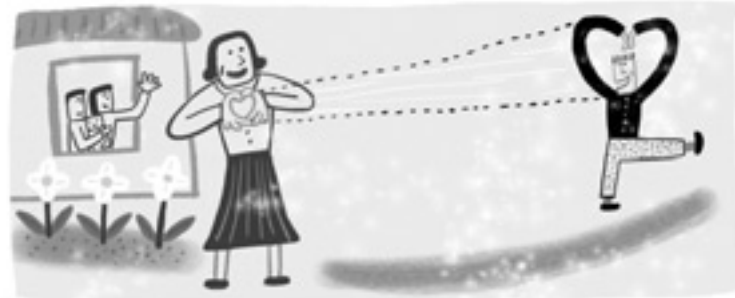
자, 이 형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남자들에게 퇴직은 가정생활의 새로운 시작이다. 남편은 집청소도 하고 현관정리도 하면서 나름대로 가정에서 자신의 몫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아내의 관심은 딸과 손녀 그리고 사위다. 자신에게 있어서 아내는 일순위인데, 아내에게 자신의 존재는 4순위인 것이다. 딸과 손녀는 어쩔 수 없이 쳐도 사위에게까지 밀린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사위는 딸의 사랑까지 담백 받고 있지 않은가. 딸이 사위에게 하는 것만 봐도 질투가 난다. 같은 남자로서 사위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데 자기 몫의 사랑까지 저기로 새어나가다니! 사위

가 곱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공격의 대상은 사위지만 해결의 열쇠는 아내 손에 있다.

자, 입장 바꿔 아내 쪽에서 생각해 보자. 남편은 퇴직 전에는 집안사람이 아닌 직장의 사람,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다. 아내는 자식들에게 마음 붙이려 하고 살았다.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남편과 둘만의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계획도 하지 않았다. 마침 시집간 딸이 손녀를 낳았고 사위를 데려왔다. 산후 뒷바라지라는 삶의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사위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남편을 딱히 무시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자신의 임무에 시비를 걸고 혼선을 빚는다. 애정이 더 돈독해져야 할 판에 있던 애정도 인출되고 애정의 잔고가 점점 줄어든다.

남편은 아내가 섭섭하고 아내는 남편이 힘들어진단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부



부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내는 알아야 한다. 자식은 짧고, 남편은 길다는 것을. 자식은 결국 자기 자식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고, 엄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결국 삶의 동반자는 남편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남편과 조율하는 데 나서야 한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더 좀 신경을 쓰겠다. 곧 갈 테니 조금만 더 참자. 나도 애들이 고와서 가 아니라 부모의 의무라서 그렇다.”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외로운 남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면 질투의 불길은 곧 잡힐 것이다.

남편은 은근과 끈기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청소 한번, 신발정리 몇 번으로 부부 사이가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남편의 변화와 배려에

감동하는 마음을 가질 만하면 질투어린 생색으로 공을 깨버리는 것이다. 기껏 일해 놓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감점을 당하니 이렇게 허무할 수가! 반면에 “당신 애 낳고 몸조리할 때 내가 요즘 젊은 남편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런 말 한마디는 얼마나 결정적인지. 아내는 말로야 “알긴 아는구려” 하겠지만 꽤 부 깊숙이 훈풍이 들어찬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질투를 곱게 뒤집으면 애정이라는 안감이 드러난다. 질투도 때로는 부부에게 힘이 된다.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땅의 기운이 배 곰삭은 맛 묵은지



이달의 요리는 김치 삼겹살 찜과 열무와 배추겉절이(2009년 4월 10일 방송)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김장 김치는 겨우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고구마로 점심을 때울 때도 반찬은 김치였고, 밥이 부족할 때 찬밥을 넣고 사람 수대로 물을 부어 죽을 만들어 먹을 때도 재료는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겨울 추위를 이기는 힘이었지요. 겨우내 땅 속에서 고스란히 지기(地氣)를 받아들인 김치는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또한 늦은 봄, 묵은지를 깨끗이 물로 씻어 먹었습니다. 묵은지 그 깊은 맛은 입안에 고이는 침으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묵은지의 깊은 맛 속으로 빠져볼까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보쌈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침이 꿀꺽꿀꺽, 드디어 저녁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해준 보쌈은 묵은지로 토막난 고등어를 돌돌돌 보쌈 하듯 싸서 자박자박 조린 음식이었습니다. 전 돼지고기 보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 음식은 동네 잔치날에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쌈이다. 쫓겨나기 싫으면 퍼떡 먹어라. 야가 고등어 사려고 읍내 장까지 다녀왔구먼. 복에 겨운 소리한다” 하시며 손에 상추를 떡하니 올려주더니만 여기에 고등어와 묵은지를 같이 싸먹게 해주셨죠. 그 후로도 종종 고등어보쌈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커서보니 묵은지 고등어조림이 쉽지 않은 음식이더라고요. 비리지 않은 어머니표 묵은지 조림을 아내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류정만 님

한 여자 분과 소개팅으로 만나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할 텐데 이 여자 분은 “묵은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갔던 가게가 떠올라 데리고 갔는데, 찾기가 어려워 한 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여자 분의 얼굴은 굳어 있었는데, 나온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어보니 얼굴이 풀리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언제 화가 났냐는 듯 제가 있건 말건 김치를 손으로 꼭 찢으며 “이렇게 먹어야 제 맛” 이라고 하면서 공기밥을 두 공기나 허겁지겁 해치웠습니다. 저는요, 여자가, 그것도 두 번째 만남에서 손으로 김치를 찢고 밥을 두 공기나 먹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밍지 않았어요. 그 여자분 하고 잘되진 않았지만, 묵은지 보면 그분이 떠올라 웃음 짓습니다.

-이재구 님

어릴 적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쿼퀴한 냄새가 나는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우린 냄새가 난다며 안 먹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김치 한 통을 싸주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쩌나 냄새가 나는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더군요. 다음날 밥상에 못 보던 김치가 올라왔는데, 고춧가루가 하나도 없는데 백김치도 아니고... 뭔가 싫어 먹어보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더니, “무슨 소리야? 어제 네가 가져온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잖아?”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맛있게 먹은 김치는 할머니 댁에서 냄새난다고 먹지 않았던 바로 그 김치였습니다. 엄마가 깨끗이 씻어 조리하신 겁니다. 지금은 여름엔 물에 밥 말아서 묵은지 찢어 올려먹는 맛에 사는 걸요.

-이영선 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다니던 시절에 한 수녀님이 묵은지를 내 놓았는데, 갓김치 묵은지였습니다. 땅속에서 4년 된 갓김치라고 하는데, 하나도 무르지 않았고 맛이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다 도시락을 싸오던 시절이었는데, 자기 도시락 반찬은 손도 안 대고 갓김치 묵은지에 모두의 젓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도시락밥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린 밥 없이 김치만 계속 먹었고, 그날 오후 물 마시느라 바빴습니다. 갓김치 묵은지, 진짜 맛있습니니다.

-김일영 님

cooking recipe 1 ● 레시피_우영희(요리연구가)



김치 삼겹살 찜

재 료

묵은 김치 1/2포기

① 속을 털어내 준비한다.

삼겹살 500g ② 1cm 두께로 자른다.

대파 1대 ③ 어슷 썰어 준비한다.

김치국물 15~2컵,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2작은술

양파 2개 ④ 반으로 잘라 놓는다.

※ 만들기

- ① 냄비에 참기름 1큰술과 다진 생강 1/2작은술을 넣고 삼겹살을 넣고 볶는다.
- ② 삼겹살이 익어 색이 변하면 속을 털어낸 김치를 포기째 삼겹살 위에 올린다.(이때 반으로 자른 양파도 넣는다.)
- ③ 김치국물에 고춧가루 1큰술과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 잘 섞은 후, 김치 위에 부어준다.
- ④ 생수 4~5컵을 더 넣고 센 불에서 끓인다.
- 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40분간 은근히 조리한다.
- ⑥ 마지막에 설탕 1큰술과 소금 1큰술을 넣어 간을 맞춘다.

열무와 배추겉절이

cooking recipe 2



재 료

열무 900g ~1kg

① 길이가 7~8cm 나오도록 잘라 다듬어 놓는다.

배추 1통(1.5kg)

② 배춧잎을 반으로 길게 자른 후 옆으로 어슷 길쭉하게 자른다.

무 1kg ③ 채 썬다.

쪽파 200g ④ 6cm 길이로 썬다.

천일염 1컵, 반 1컵과 물 1컵 넣어 곱게 갈아 준비한다.

양파 1/2개(150g)

⑤ 물 1/2컵 넣어 곱게 간다.

볶은 고추 10개

⑥ 곱게 갈아 준비한다.

※ 만들기

- ① 다듬어 놓은 열무와 배추는 물에 두 번 정도 씻은 후, 소금 1컵을 골고루 뿌려 2시간 40분간 절인다. (중간에 2~3회 정도 위치를 바꿔 골고루 절이도록 한다.)
- ② 절인 열무와 배추를 맑은 물에 2~3회 헹구 체에 받혀 40분간 물기를 뺀다.
- ③ 커다란 양푼을 준비해 채 썬 무를 넣고,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 5분간 둔다.
- ④ 여기에 볶은 고추 간 것, 양파 간 것, 밥 간 것을 넣고 고루 섞어준다.
- ⑤ 양념이 골고루 섞인 후, 쪽파 넣고 버무리고 물기를 뺀 열무와 배추를 넣고,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버무리 완성한다. (이때 마지막으로 간은 소금으로 맞추도록 한다.)
- ⑥ 먹기 직전에 통깨를 뿌려 낸다.

행복의 조건

“우리는 가난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행복해.” MBC TV <내조의 여왕>에서 천지애(김남주)가 자신의 첫사랑 한준혁(최철호)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무릎을 쳤다. ‘<내조의 여왕>이 저러서 재미있구나!’ 싶어서다.

<내조의 여왕>은 천지애가 머리는 좋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온달수(오지호)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내조’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천지애는 남편을 대기업 퀸즈 푸드에 입사시키려고 회사 임원의 아내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남편의 입사 뒤에는 회사 임직원 아내들의 모임 ‘평강회’를 통해 남편을 출세시키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쓴다. 이쯤 되면 천지애를 남편의 성공에 눈이 뒤집힌 속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내조의 여왕>은 천지애를 통해 모두가 속물로 사는 요즘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양봉순(이혜영)은 잘 나가는 남편 한준혁 덕에 물질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양봉순이 한준혁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속임수를 써서 한준혁과 천지애를 갈라놓았기 때문이고, 양봉순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한준혁 역시 천지애에 대한 미련으로 양봉순에게 사랑을 쏟지 못한다. 퀸즈 푸드의 사장인 허태준(윤상현)과 은소현(선우선) 부부도 마찬가지. 은소현과의 정략결혼 때문에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진 허태준은 늘 밖으로만 돌고, 은소현은 외로움에 괴로워한다. <내조의 여왕>에서 천지애와 온달수를 제외한 남녀 주인공들이 모두 과거에 집착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했던 과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러기엔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늪에 빠져 있다. 한준혁은 상사와 손잡고 허태준을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봉순 역시 그런 남편과 보조를 맞춰 온갖 부정을 저지른다. 그래서 <내조의 여왕>은 요즘 주부들의 세태를 풍자한 드라마다. 또한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 가릴 것 없이 물질적인 성공에 달려드는가를 묻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내조의 여왕>은 무작정 돈보다 정신적인 행복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천지애가 온달수의 내조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먹을 걸 덜 먹겠다’며 돈 없는 부모를 걱정하는 딸의 모습을 본 뒤부터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준혁의 말대로 ‘전쟁’이라고 할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고, 반대로 그 생활이 반복되다보면 따뜻한 행복과는 멀어진다.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조의 여왕>은 물질적인 삶을 찬양하다시피 했던 몇몇 ‘막장 드라마’의 정반대에 자리 잡는다. 그 드라마들에서 행복이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조의 여왕>은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내조의 여왕>은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는 코미디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보다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대중적이면서도 메시지가 있는 좋은 드라마의 힘이 아닐까. ♥



고맙다, 전주!

전주 MBC 창사기념 특집방송 덕에 서울을 떠나는 여성시대 식구들은 소풍가는 기분으로 조금은 들떠 있었다.

오랜만의 나들이였다. 서울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의 방송은 최근 들어 뜸한 편이다.

한 주 단위로 나뭇잎의 무성함이 달라 보인다. 애기 잎이 그리도 작은데 모든 형태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런 놀라움도 잠시, 생각난 듯 하늘을 보면 무섭게 자란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

어느덧 31년째 이어온 신춘편지쇼, 심사와 공개방송도 무척 즐거웠다. 매일 매일이 그 타령이었는데, 얼마나 새삼스럽게 즐거웠는지!

우리가 어떤 곳을 떠올릴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동시에 생각한다.

전주 MBC 식구들의 안내로 찾아간 비빔밥집, 콩나물국밥집 인사를 건네는 얼굴들, 또 바람 불고 날이 썰렁해 더운 물 한 잔 부탁하러 들어간 경기 전 옆 한약방에선 급히 서둘러 쌍화차를

끓여주었다.

또 밤새 숙개떡 찌느라 한숨 못 잤다면서 따끈따끈한 떡을 가져다주신 애청자분도 계셨다.

이동스튜디오 앞에 보이던 전동성당의 풍경, 소풍 나온 호남제일여고 1학년 학생들, 유치원 차안에서 흔들어 주던 교사리들의 손, 숙소에서 일찍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내려다 본 한옥마을의 지붕들, 미음(ㅁ)자 마당 안으로 떨어지는 아침 햇살, 어린 날 내가 자라던 동네풍경이었다.

그리고 내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은 빵집의 냄새와 빵맛도 정겨웠다. 그 집의 크림빵과 단팥빵 그리고 네 가지 맛의 전병은 맛이 별나게 좋았다.

그곳에서 만난 전주가 고향이라는 시카고 교민 분은 땅콩전병만을 강력 추천했다. 나는 그분의 말대로 하진 않았다. 네 가지 맛을 골고루 담았다.

그래도 그 말이 걸려 서울로 오는 차안에서 개봉해 정말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아작아작 전병 한 개를 먹더니, 방배동 강 선생님이 “참, 맛있네요”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추천할 만한 맛이였다.

어린사람들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거침이 없을까! 여고생들의 예쁜 춤사위와 웃음, 교복의 신선함. 콩나물국밥집의 반 뺑뺑 열린 창문 사이로 보이는 유리병에 꽂아 놓은 목단꽃 한 송이. 어느새 모란이 필 때가 되었나?

전주는 이상하게도 조용하지만 품격이 있는 도시다. 꽃집도 다르다. 품위가 있다.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고집, 그 고집이 고마운 도시다.

5월쯤 엄마 모시고 맛집 기행과 더불어 한옥마을 산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콘서트에서 받은 박수 중에 잊을 수 없는,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박수를 나는 전주에서 실컷 받았다.

그 애기 생방송 중에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



동분서주하는 나날들

어느 일요일 저녁, 그 즈음 참으로 바빴다.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배의 작곡 발표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현대음악이라는 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 혹시 해설이 곁들여지면 좀 나을까 하는 취지였는데, 역시 현대음악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음악회가 끝나고 늦은 밤 전주에 도착해 다음날 아침, 여성시대 생방송을 하고 서울로 왔다. 수면시간이 부족해 그랬는지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개포도서관에서 ‘책을 읽자’ 행사에 해설과 낭독을 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간 게 화근이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몸에 한기가 스며들었다. 염려했던 것보다는 참석자들이 많아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혹시 자리가 텅 비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인지 영 몸이 무거웠다. 그저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책을 충실히 읽는 것과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줄 것인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몇 명이 올 것인가, 분위기나 반응은 어떨 것인가 뭐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나를 지치게 했나보다. 이런저런 조바심이 내 몸 어딘가에 피로물질로 쌓였나보다.

집으로 와서 옷을 두툼하게 갈아입고서야 빗길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인사동으로 갔다. 중학교 때 친구들의 부모님인데, 꽤 오랜만에 만나는 거여서 취소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하루 자고 다음날이 되니 일어나는데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힘들었다. 녹화 들어가기 직전인데, 대사를 하나도 외우지 않아 어쩔 줄 모르는 꿈을 또 꾸었다. 새로운 드라마 섭외가 오면 어김없이 꾸는 꿈이다.

또 도시락을 싸갔는데, 내 것을 누군가가 다 먹어 나는 여기저기 한 술 빌어 먹는 꿈도 꾸었다. 꿈에 음식을 보면 감기에 걸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역시 감기 기운이 있는지 머리가 지끈지끈한 게 영 불쾌한 느낌이다.

‘오늘, <일 대 백> 녹화가 있는데...’ 괜히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잘해야 할 텐데 하는 부담이 엄청 강하게 밀려드는 순간 육신거리는 두통이 더 심해졌다. 어찌어찌 녹화를 끝냈다.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아들·딸과 차 한 잔 하고 싶었는데, 아들 녀석은 독서실에 가겠다고 하니 고3인데 잠을 수가 없었고, 중3 딸아이는 마음에 두고 있는 학교 남자친구가 지나간다고 그대로 달려 나가는 바람에 아내와 둘이 길거리 찻집에 앉게 되었다.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니 앞으로 대략 10년 정도 사랑의 감정에 시달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달려가는 딸아이가 갑자기 걱정스러워진다. 뉴스에서는 중학생들이 특히 여중생 흡연율이 성인여성들 흡연율을 앞선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위안해 보지만 모든 부모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딸아이 방을 돌아보게 된다. 절대 내 딸은 아니려니 하는 믿음은 있다.

또 내일은 경찰청 캠페인 촬영이 있고, 그 다음날엔 여성시대 공개방송이 있고... 내 머리는 지끈지끈하지만 바쁜 것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내 자신에게 또 한 번 가르쳐 본다. ♥



압도 정도의 문제

“거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 한 달에 돈을 수억을 버는데, 방송사 피디들은 봉급쟁이잖아요. 그냥 있겠어요? 분명 연예인들 수입 중 상당부분이 피디들한테 갈 거예요.”

특집 방송 관계로 지방에 내려갔을 때, 한 술집에서 만난 사내가 목소리를 높인다.

“뭐라고요? 돈을 받지 않는다고요?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피디들 쥐꼬리만한 자기 월급 보면 가슴에서 천불이 일 텐데...”

아무리 반박을 해도 막무가내다. 사실 이 세상이 깨끗하진 않다. 공무원도 비리가 있고, 회사원도 비리가 있다. 방송사 직원인 피디들 역시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힘이 있고, 돈이 흐르는 곳엔 부정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피디들은 그럴 수 있죠. 부적절한 접대로 문제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디들이 돈을 받는 게 당연하고, 또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보람을 찾는 거죠. 남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배가 아프고 또 부정을 저지른단

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실업자들이 넘쳐 나는데 너무 돈돈 하지 마세요. 방송사 스태프들, 잠이 부족해 새우잠 자며 일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술집 여주인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그는 이 같은 항변에 조소를 날린다. 압도가는 공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아무리 인기 높은 연예인과 기획사도 피디들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게 마련이란단다.

문득 며칠 전 일이 생각났다. “공개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OO 씨, 출연 가능할까요?” “어, 이달 말까지는 S본부 예능 프로만 땔 건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의 트롯 앨범이 돌아다니고 매니저는 노래 들어달라며 음반을 건넸다. 또 한 매니저는 섭외 요청에 답을 주지도 않는다.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보내고 몇 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공개방송 출연을 조건으로 일주일 간 매일 노래를 들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물론 회사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작디작은 문제다. 그 대상 역시 소위 잘 나가는 일부 연예인들에게 한정되니 권력과 그 주변의 구악적 구도를 반박하기에는 지나치게 작고 개인적인 경험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최근엔 장차연 리스트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그 폭풍의 한 가운데에 일부 피디들이 있었던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역시 예의 같은 기본, 즉 정도(正道)의 문제란 점이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별 볼일 없는 이들이 시끄럽다고 하죠? 어떤 부분이든지 문제가 되고 탈이 많은 부분은 사실 다 쪽정어들입니다. 그런데 쪽정이란 보고서 버는 저렇게 자라는 거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의 기준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내는 아마도 우리 사회의 진실에 한 꺼풀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자신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바른생활을 강조하는 이들을 두고 혀를 찼을 것이다. 얹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이처럼 판단력과 마음의 기본이 흔들려버린다. 압도 정도(程度)의 문제다. ♥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베아타 베아트릭스〉

9세기 영국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는 중세적 신비와 낭만적 서정을 담은 작품들을 주로 제작했다. 그 대표적인 걸작의 하나가 〈베아타 베아트릭스〉로,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여성을 그린 그림이다.

‘리치’란 애칭으로 불린 이 여성은 로제티의 모델이었다가 그의 아내가 됐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 이태 만에 사망함으로써 로제티는 그 사랑의 아픔과 기억을 이렇듯 애달픈 그림으로 남기게 됐다.

그러나 이 ‘사모곡’의 그림자 뒤에는 그리 이름답지만은 않은 개인사적 비극이 자리하고 있다. 로제티는 리치를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파니라는 정부를 가까이했다. 이는 리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을 사산하게 되자 리치는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1862년 남편과 외식을 한 후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편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당시의 관행에 따라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사실상 자살을 한 것이다. 리치의 죽음은 이렇듯 매우 비극적이다.

그런 까닭에 〈베아타 베아트릭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사모곡이 아니라 방탕했던 한 남자의 회환과 탄식이다. 이 그림을 보노라면 그 비가가 지금도 우리 귓가에 아련히 메아리치는 것만 같다.

로제티는 런던에서 이탈리아 이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와 문학을 좋아했는데, 로제티의 이름에 단테가 들어간 것도 평생 단테에 깊이 심취했던 아버지의 취향 탓이었다. 이런 가정환경에서 로제티가 문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로제티는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화가로서뿐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오늘날까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로제티, 〈베아타 베아트릭스〉,

1872, 캔버스에 유채, 87.5x69.3cm,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